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学碩士 學位論文

新語 · 流行語를 통해 보는 現代  
日本の 時代相

-首相과 관련된 新語 · 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2011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金 滋 采

文学碩士 学位論文

新語 · 流行語를 통해 보는 現代  
日本の 時代相

-首相과 관련된 新語 · 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崔 建 植

이 論文을 文学碩士 学位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金 滋 采

金滋采의 文学碩士 学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張 相 彦 (印)

委員 申 宗 大 (印)

委員 崔 建 植 (印)

# 목차

## \*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3
3. 선행 연구 .....	4
II. 본론 .....	7
1. 新語·流行語의 개념과 발생요인 .....	7
1.1. 新語·流行語의 개념 .....	7
1.2.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 .....	9
2. 新語·流行語 大賞語 .....	11
2.1. 연도 별로 본 각 분야별 大賞語 수 .....	13
2.2. 1984년부터 20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 .....	14
3. 분야별 시대적 배경 .....	18
3.1. 경제 분야 .....	18
3.2. 정치 분야 .....	20
3.3. 사회 분야 .....	23
4.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	27
5. 首相별 新語·流行語 大賞語의 배경 및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32
5.1. 田中角榮 首相 .....	42
5.1.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43

5.1.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44
5.2. 中曾根康弘 首相 .....	45
5.2.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46
5.2.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47
5.3. 小淵惠三 首相 .....	48
5.3.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49
5.3.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50
5.4. 小泉純一郎 首相 .....	51
5.4.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52
5.4.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57
6. 그 외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 .....	58
6.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58
6.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	65
<b>Ⅲ. 결론</b> .....	67
<b>참고문헌</b> .....	71
<b>부록</b> .....	74

The Modern Japanese Phases of the Times Viewed through the  
Newly-coined Words - the Vogue Words  
-Centered on Languages of the Grand Prix for the Newly Coined  
Words - the Vogue Words related to the Prime Minister-

Hyun Chae Kim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un Sik Choi

Abstract

This study projected and advanced a point on the Modern Japanese phases of the times through the newly coined words and the vogue words oriented in a rapidly changed society. Thus we can understand the economy, policy, and society of Japan and make ourselves familiar with the Japanese culture by studying the phases of these words.

The writer investigated the time background centered on the economic, policy and society related with the newly coined words, the vogue words and the grand prix words and then advanced toward the words related with the successive Prime Minister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connected with the precedent researchers' works and is related with the newly coined words, the vogue words and the grand prix words which are published every year in Japan. Especially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rough them and *The Basic Knowledge of Modern Words, 1991-2010: Special Books*. And the columns of the newspapers and the contents of journals published in Japan are referred to understanding a tendency and trend of the each time.

The main discourse is surveyed about a general idea and the oriented element of the newly coined words and the vogue words which are related to the economy, policy and society from 1984 until 2009. Among all the 303 words, the economic words are 22%, the politic words are 16% and the social

words are 62%. The trend of economic progress and the approval rate of the political party are known by understanding them from 1983 until 2009. And the phases of the times, and the social meanings are investigated only by the grand prix words rel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By these words, we can understand the oriented background that reflected the people's uncomfortably mental state because of the social problems which led to bring the bad political morals by the corruption of the bribery and a corrupt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circles. These corruptions of the bribery and political corruptible relations are one of the big causes that appeared by the frequent changes of the political power of the Prime Ministers. And the desire of people who have lived from the prosperous times during 1980's until the lost 10 years of 1990's became the economic recovery and the political innovation being influenced in the rate of the political supporting.

For an example, the most many newly coined words and the vogue words are oriented during the administrations of the Prime Minister Obuchi and Goizmi. The desire of people who want to get out of the economic depression became the rate of supporting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ntal state of people was expressed by the word which abuses the Prime Minister.

We could understand the phases of the time through these newly coined words and the vogue words. Therefore, these words which are known by the mass communication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 and then we can confirm the social reflections by them.

# I. 서론

## 1. 연구동기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언어는 시대의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고(新語), 변화하고, 소멸(死語)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회변화의 수용도가 빠른 젊은이들은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성되는 新語와 소멸되는 死語는 사회현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사회와 함께 하고, 사회는 언어와 함께 한다. 언어는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다. 즉 언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는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변화나 고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변화 등 그 사회와 관계된 언어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新語를 통해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신세대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경향이 짙으며, 현대문화 역시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 역시 신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 속으로 퍼져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新語는 전문가나 지식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 전체가 사용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세대가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이 언어, 사회현상을 바로 직시하는 경제, 정치, 사회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말, 방송 매체나 잡지,

도서로 인해 퍼져가는 新語와 일시적으로 집중 사용되어 인기를 끄는 流行語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 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활발해진 국제교류로 인하여 새로운 단어들, 新語·流行語는 그 자체가 한 나라의 중요한 언어현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그 나라의 시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新語·流行語는 언어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매년 생겨나는 新語·流行語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젊은이 언어이지만, 시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면에서의 新語·流行語라 할 수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등 다방면에서 생겨나는 많은 말들 중 정치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을 살펴 본 바, 그 시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정치 관련 新語·流行語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면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계 유착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권교체에 많은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기불황과 정권교체가 맞물려 있는 小淵 首相과 小泉 首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首相을 원하지만, 경제면에 약한 小淵 首相이 당선되면서 그 신뢰도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小泉 首相은 반대로 경제희생에 대한 강한 국민들의 의식이 70%가 넘는 지지율로 나타나게 되었고,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많은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首相 관련 新語·流行語를 통해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경제,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착목하여, 본고에서는 정치 관련 新語·流行語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首相 관련 新語·流行語를 대상으로 한다.

新語·流行語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일을 막론하고 양국에서 발표된 新語·流行語와 관계된 논문이나 문헌은 대체로 신세대 언어 즉, 젊은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거나 新語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어구성과 유형분류,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연구의 경향이 짙었으며,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의 新語·流行語를 통해 세대를 고찰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여러 가지 양상이 그 사용자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언어학적 시점에 서서 新語·流行語가 반영하고 있는 특히, 首相관련 新語·流行語의 시대배경과 흐름 그리고 세대를 파악하고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행해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1년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세대를 반영하는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중심으로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 해의 세대를 반영하여 나타내는 표현과 뉘앙스를 골라 그 「말」에 관련이 깊은 인물·단체에게 매년 현창(顯彰)하는 유켄 新語·流行語 大賞語<sup>1)</sup>를 대상으로 한다.

1) 新語·流行語 大賞 <http://singo.jiyu.co.jp> 1984년~2009년까지를 참조.

이 상은 1년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말」 중에 경묘하고, 세대를 반영한 표현과 뉘앙

둘째, 『現代用語의 基礎知識－1991-2010年分特別バック』과 新語 사이트  
를 조사한다.

셋째, 신문기사와 잡지를 토대로 각 시대의 동향, 트렌드를 파악하고 新  
語·流行語의 중요한 데이터 역할을 하는 新語와 流行語의 발생요인과 배  
경을 살펴본다. 이 중에서도 경제, 정치, 사회 관련 新語·流行語 大賞語을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특히, 역대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  
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新語·流行語의 흐름을 통하여 일본의 時代相과 新語·流行語 속에 반영  
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新語·流行語의 시대적 배경과 발생요인,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를 고찰하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한국 선행 연구자들은 대개가 젊은이 언어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新語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 분야별 어휘를 세분화하고 어구성을 주로 다  
루는 경향이 짙고, 「젊은이 언어」의 사용 실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전현숙(2000)의 「若者言葉の韓日比較-形態と社会的機能の考察を中心に」에  
서는 일본의 신세대 언어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세대 언어는 앙케트  
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주현(2002)의 「現代 日本語의 新語 考察-類型的 分類와 造語法을 中  
心으로」와 이 주향(2003)의 「現代 日本 新語 考察」에서 新語의 정의에

---

스를 가지고 널리 대중의 눈, 입, 귀를 떠들썩하게 한 新語·流行語를 골라 그 「말」에  
관련이 깊은 인물·단체에게 매년 현창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별 고찰과 함께 방언의 新語化에 대해 언급하고 조어법 고찰과 어종 및 어구성별 분류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김정희(2003)의 「헤이세이 1년부터 헤이세이 11년까지의 新語와 流行語를 통해 본 시대의 양상」에서는 『現代用語의 基礎知識』과 『イミダス (이미다스)』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로 나누어 11년간 발생했던 일과 다양한 현상을 고찰하였다.

임진성(2005)은 「日本語에 나타난 新語 考察」에서 주로 03년부터 04년까지 유행한 新語를 토대로 각 어휘에 담겨있는 어의와 유형을 언어학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각각 접근하여 어휘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권은숙(2005)은 「韓日 言語行動의 対照社会言語学的 研究」에서는 한국인의 언어행동 유형에 따른 실태 조사와 언어행동의 표출양상을 파악하고, 표현유형을 찾아 한국인의 언어행동 양식의 특징을 밝히고, 일본인의 언어행동 양식과 대조 비교 분석하고 있다.

백동선(2006)의 「新語·流行語를 통한 일본의 時代相 분석」에서는 84년부터 05년까지의 新語·流行語를 스포츠 관련 용어, 사회 분야, 경제 관련 용어, 정치 관련 용어, 남녀 학력을 나타내는 용어, 방송 용어 등으로 나누어 발생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대상을 분석하고 있다.

박주영(2007)의 「일본의 現代用語 事典을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흐름 비교-현대사회와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는 일본의 현대산업과 미디어 산업으로 한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한·일 양국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선행연구자 중 米川明彦(1989)의 『新語と流行語』에서는 新語와 流行語의 정의를 내리고 발생요인을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언어적 요인, 언어 유희적 요인 등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新語와 流行語에 대한 위화감·저항감과 말의 보급·정착·소멸의 문제를 고찰하고 어의 형

태를 고찰하고 있다.

窪園晴夫(2002)의 『もっと知りたい日本語—新語はこうして作られる』는 옛날부터 있었던 조어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新語·流行語·젊은이 언어까지 다루고 있고, 일본어에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의 배경에 어떠한 언어학적 원리나 규칙이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大塚明子(2003)의 『新語死語流行語—こんな言葉を生きてきた』는 『イミダス』에 게재된 내용을 재편집해 놓은 것으로 86년부터 03년까지 18년간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새롭게 생겨난 新語와 流行語, 死語의 발생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시대상을 고찰하고 있다.

北原保雄(2009)의 『みんなで国語辞典2 あふれる新語』는 신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남·여간의 사랑과 관계되는 新語를 다루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선행연구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新語와 流行語의 의미와 어의 형태, 어의 구조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다.

지금까지의 한·일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젊은이 언어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新語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한 어휘 분류, 어구성에 따른 조어법 분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한·일 양국어의 新語 비교도 보여지고 있었다. 이것은 新語·流行語에 관한 고찰은 변화가 빠른 언어연구라는 점에서 접근이 매우 어렵고 그 연구 분야가 방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新語·流行語의 흐름을 통하여 일본의 時代相과 新語·流行語 속에 반영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언어학적 시점에 서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新語 · 流行語의 개념과 발생요인

#### 1.1. 新語 · 流行語의 개념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고 그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단어가 新語이다.

新語는 기존의 어휘 체계에 완전하게 수용되지 않은 단어로, 사람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新語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는 사용되기 시작한 말, 新造語。」라 정의하고 있고,<sup>2)</sup>金田一 春彦 外 編(1988) 『日本語百科大事典』에서는 「새롭게 생겨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서 또는, 기존에 있었던 사물이나 개념에 있어서도 이것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새로이 생겨난 말。」로 정의 내리고 있다.<sup>3)</sup>

米川明彦(1989)는 「新語를 새롭게 언어사회에 생겨난 말로 신조어<sup>4)</sup>와 기존어를 이용해 만들어낸 것이며, 외래어나 합성어 그리고 파생어 등의 新語가 있다。」<sup>5)</sup>고 하고 있다.

2) 「新しく造られ、または使われだしたことは。新造語。」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3) 「新しく現れた事物や概念に対して、あるいはまた、従来からある事物や概念であっても、これを新しく言い表すために、新しく作られた言葉。」

金田一 春彦 外 編 (1988) 『日本語百科大事典』 大修館書店

4) 新語와 新造語를 구분 짓기 어려우므로 新語로 통일해서 표기하기로 한다.

新語가 만들어지는 것은 크게 외래어를 채용하거나, 기존어에 덧붙여 생긴 말, 새로이 생겨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존어에 덧붙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복합, 파생, 생략 등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流行語는 新語의 일종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에 적합하고 강한 감화적 의미를 가지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로, 대개는 단기간에 소멸되지만 길게 사용되어 일반어휘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新語와 마찬가지로 流行語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에서 「어느 한 시기에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다.」<sup>6)</sup>고 하며,<sup>6)</sup>鈴木英夫(2003) 『日本大百科全書』에서는 「가끔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에 적합하고 강한 감화적 의미를 가지고 급격하게 사용되는 말.」<sup>7)</sup>로 정의하고 있다.

米川明彦(1989)는 「그 세대에 적합하고 극히 감화적 의미가 강하고 널리 민중에게 사용된 언어이다.」<sup>8)</sup>고 정의하고 있다.

流行語는 대개는 짧은 기간에 소멸되지만, 길게 사용되어 일반어휘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매스컴의 발달과 더불어 유행어의 소장(消長)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流行語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나 문장의 표현을 말하며 다른 말로는 ‘世相語’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매체로 해서 유행가, 코미디언, 사회자, CF, 만화 등에서 쓰인 말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新語는 새롭게 생겨난 말, 기존에 있던 말에 더해져 새로운 뜻을 가지는 말이며, 그 세대에 적합하고 극히 감화적

5) 米川明彦(1989), 『新語と流行語』 南雲堂 pp.11~14.

6) 「ある期間、興味を持たれて多くの人に盛んに使用される語。」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7) 「「はやりことば」ともいう。その時々の人々の興味や関心に適合して、強い感化的な意味をもって、急激に使用されるようになる語。鈴木英夫(2003),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8) 주5)와 동일.

의미가 강하고 널리 민중에게 사용된 말을 流行語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新語·流行語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新語의 큰 범주 안에 流行語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고찰 하는 바, 新語와 流行語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新語·流行語로 쓰기로 한다.

新語·流行語 大賞語에 선정된 용어와 『現代用語の基礎知識-1991-2010 年分特別パック』에 실린 용어를 가지고 時代相과 발생요인을 살펴본다.

## 1.2.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

米川明彦(1989)는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에 대해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언어적 요인, 언어 감각적 요인, 등 4가지의 유형을 예로 들고 있다.<sup>9)</sup>

먼저, 新語의 발생요인을 보면, 첫째, 사회적 요인은 그 사회에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겨나고 또는 차용된 경우를 말한다. 즉,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이 유입되면 한자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新語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둘째, 심리적 요인은 新語를 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나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말을 바꿈에 따라 바람직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며 新語를 고안하기도 한다. 어떤 일의 길흉에 의해서 어형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셋째, 언어적 요인은 언어 자체의 변화에 의해 新語가 생기는 경우 또는 기존에 있는 말을 대신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9) 米川明彦(1989), 『新語と流行語』 南雲堂 pp.21~89.

넷째, 언어 감각적 요인은 언어 규범의 완화와 언어유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언어 규범의 완화는 19세기경까지 도쿄에서는 일본어의 ‘とてもできない’ 처럼 ‘とても’는 ‘できない’라는 부정을 수반하여 사용했는데, 20세기 초부터 ‘とてもいい’와 같은 긍정형도 수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언어유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新語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流行語의 발생요인을 米川明彦(1989)는 新語의 발생요인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은 사회의 상황, 세태, 풍속을 나타내는 말이 없었을 때라든지 그것을 풍자 할 때 만들어져 유행하게 된다. 유행가, 신문, 텔레비, 라디오, 잡지 등 대중의 눈, 귀, 입을 통해 반복되어 퍼져간다. 말 자체는 감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 流行語로 된다.

둘째, 심리적 요인의 하나로 유명인이 말한 것을 따라 하는 대중 심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 저명한 평론가 등이 한 말에 공감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어 流行語가 된다.

셋째, 언어적 요인은 그 말이 가진 어형·의미·용법의 뛰어난, 신선함이나 일상 회화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말한다.

넷째, 언어 감각적 요인은 표현의 감각화라고 하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음을 감각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新語·流行語의 개념과 발생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절에서는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과 시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유켄 新語·流行語 大賞이 발표되기 시작한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新語・流行語 大賞語

일본에서 新語는 70년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와서는 新語의 근간을 이루는 젊은이 언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新語는 流行語・青年語・女高生語・新方言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KY語<sup>10)</sup>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생겨나는 新語에 대해 일본에서는 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김없이 유권 新語・流行語 大賞이 발표되고 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유권 新語・流行語 大賞은 그 해 1년 동안 생겨난 ‘말’ 중에서 세태를 반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내린 新語・流行語를 골라 이 ‘말’에 관련된 인물 및 단체를 현상하는 상으로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로서 新語・流行語가 매년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賞으로 발표된 新語・流行語를 보면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표1>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sup>11)</sup><총303어>

회 수	1	2	3	4	5	6	7	8	9	10
연 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大賞語수	10	14	15	14	14	13	12	15	14	14

10) KY語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생성된 언어이고, 단어를 로마자로 변환시켜서 어두 글자만 추출하여 조합한 단어이다. ‘空気読めない(Kuki Yomenai)’라는 문장을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고, 첫 글자만 따서 줄인 표현이다. DD(だれでも大好き-Daredemo Daisuki), TK(たしかに-Tashi Kani), 3B(ブス、ブタ、バカー-Busu, Buta, Baka), SI(その意味-Sono Imi)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 新語・流行語 大賞 <http://singo.jiyu.co.jp> 1984년~2009년까지를 참조.

회 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 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大賞語수	12	10	10	10	12	10	10	13	11	10

회 수	21	22	23	24	25	26
연 도	04	05	06	07	08	09
大賞語수	10	10	10	10	10	10

84년에 창시되어 매년 12월 1일(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다음 평일)에 발표되고 있다. 『現代用語の基礎知識』(自由国民社)의 독자 앙케이트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 받아, 新語·流行語大賞 선고위원회에 의해서 톱10과 연간 대상이 선정되었다.

당초는 新語 부문과 流行語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을 비롯해서 각상이 선정되었지만, 8회째인 91년부터는 연간 대상이 만들어졌으며, 11회째의 94년부터는 양 부문을 합쳐서 선정하게 되었다. 20회째가 되는 03년부터는 주식회사 일본 통신교육연맹과 제휴하여, 현대용어(現代用語)의 기초지식선(基礎知識選) 『生涯学習のユーキャン新語·流行語大賞』으로 개칭되었다.

84년부터 09년까지 26회째 발표되었으며, 뉴스나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다. 84년부터 94년까지는 매년 10어에서 15어가 受賞語였으며, 95년부터 지금까지는 매년 10어가 大賞語였다.

특별히 98년에는 특별상(特別賞)이 2어 추가되어 있고, 01년에는 어록상(語録賞)이 2어와 入賞이 1어 추가되어 있다. 02년에도 역시 特別賞 1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小渕 首相과 小泉首相의 정권 교체기로 특별상과 어록상

이 추가가 되면서 大賞語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총303개가 大賞語였다. 즉, 「大賞語」란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한 표현으로 사회상을 가장 잘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 2.1. 연도 별로 본 각 분야별 大賞語 수

<표2> 연도 별로 본 각 분야별 大賞語 수<sup>12)</sup>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경제	1	3(1)	6	5	6	2	4	3	5	3
정치	1(1)	1(1)	2(1)	1(1)	2	2	2(1)	2(1)	3(1)	2
사회	8	10	7	8	6	9	6	10	6	9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경제	4	2	0	2	3	1	1	2	1	1
정치	2(1)	2	1	1	4(2)	1(1)	1	5(2)	2	2(1)
사회	6	6	9	7	5	8	8	6	8	7

연도	04	05	06	07	08	09
경제	0	3	1	2	2	3
정치	2(1)	3(2)	1	1	2(1)	2
사회	8	4	8(1)	7	6	5

(괄호안의 숫자는 首相 관련어)

12) 주9)과 동일.

크게 경제,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누는데 산업과 경제 관련어를 경제 분야로 하고, 정치 관련어는 정치 분야로, 스포츠, 문화, 방송 관련, 도서, 등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회 분야로 분류하기로 한다.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총 303어 중 경제 분야에서는 66어(22%), 정치 분야에서는 50어(16%), 사회 분야에서는 187어(62%)가 大賞語였다.

경제 분야는 불경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나타내는 新語·流行語와 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新語·流行語가 많았다.

정치 분야는 首相을 둘러싼 新語·流行語와 선거 관련 국내외 정세를 나타내는 新語·流行語의 大賞語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스포츠 특히, 범국민 스포츠에 해당하는 야구와 관련된 新語·流行語와 인기를 끌었던 도서나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된 新語·流行語, 사회문제와 관련된 新語·流行語의 大賞語가 많았다.

## 2.2.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sup>13)</sup>

<표3> 84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sup>14)</sup>

구분	新語·流行語 大賞語
1984년	オシンドローム, 鈴虫発言, 「スキズ・パラノ」, 特殊浴場, 「まるきん まるび」, くれない族, 疑惑, 千円パック, 「す・ご・い・で・す・ネッ」, 「教官！」
1985년	分衆, パフォーマンス, NTT, キャバクラ, 言語戦略, 네바카, 「イッキ! 이ッキ!」, 트라키치, 角抜き, 「私はコレで会社をやめました」, 「投げたらアカン」, 100ドルショッピング, 「愛しているからチライのよ」, テレビ番組「ひょうきん族」から発する各種流行語
1986년	究極, 激辛, ファミコン, 川の手, 家庭内離婚, アークヒルズ, 新人

13) 新語·流行語 大賞 <http://singo.jiyu.co.jp> 1984년~2009년까지를 참조.

14) 상세한 풀이는 부록을 참조.

	類, 知的水準, 「亭主元気で留守がいい」, おニャン子, 「プッツン」, 「やるしかない」, 150円台, 「「バクハツだ!」 「なんだかわからない」」, 地揚げ・底地買い
1987年	マルサ, JR, 第二電電, サラダ記念日, 朝シャン(モーニング・シャンプー), ノリサメ, 懲りない〇〇, 「なんぎやなあ」, ゴクミ, マンガ日本経済入門, ワンフィンガー ツーフインガー, サンキューセット, “国際”国家, 鉄人
1988年	ペレストロイカ, ハナモク, トマト銀行, 遠赤(効果), カイワレ族, 「今宵はここまでに(いたしとうござりまする)」, ドライ戦争, シーマ(現象), アグネス論争, 5時から(男), しょうゆ顔・ソース顔, 一村一品/ヒューマン・ブランド, 「ユンケルンバ ガンバルンバ」, 「ふつうは“汚職”と申します」
1989年	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 H a n a k o, D O D A / デューダ(する), まじめ×ゆかい, 濡れ落葉, オバタリアン/オバタリアン(旋風), ケジメ, 「24時間タタカエマスカ」, イカ天, 「こんなに出ましたけど〜」, 『壁』開放, 平成, NOと言える日本
1990年	フアジィ, “ブッシュ”ホン, オヤジギャル, アッシーくん, ちびまる子ちゃん(現象), バブル経済, 一番搾り, パスポートサイズ, 愛される理由, 昭和生まれの明治男, 「気象観測史上(はじめての…)」, スペシャルゲスト
1991年	「…じゃあ～りませんか」, 火砕流, 「ひとめぼれ」, 八月革命, 川崎劇場, 地球にやさしい, 紺ブレ, 若貴, 重大な決意, 損失補填, 「僕は死にましょ～ん」, 「ダダーン ポヨヨン ポヨヨン」, ダンス甲子園, チャネリング, 雅美さん, 雅子さん, たぬき顔
1992年	「きんさん・ぎんさん」, 「うれしいような、かなしいような」 「はだかのおつきあい」, ほめ殺し, カード破産, もつ鍋, 複合不況, 9K, 謝長悔長, 冬彦さん, 「ねエ、チューして」, 上申書, 宇宙授業, 歌手の小金沢クン, ツインピークス, 「Time for change」
1993年	Jリーグ, サポーター, 新・〇〇, FA(フリーエージェント), 規制緩和, 清貧, 天の声, 親分, 「聞いてないよォ」, お立ち台, 2500円スーツ, ウゴウゴ・ルーガ, たま・ひよ(族), 「悪妻は夫をのぼす」
1994年	「すったもんだがありました」, イチロー(効果), 「同情するならカネ

	をくれ」, 価格破壊, ヤンママ, 新・新党, 大往生, 人にやさしい政治, 契約スチュワーデス, 閑空 (かんくう) , ゴーマニズム, 就職氷河期
1995年	無党派, NOMO, 「がんばろうK O B E」, ライフライン, 安全神話, 「だ・よ・ね (D A ・ Y O ・ N E) ま、いっか (M A I C C A) 」, 「変わらなきゃ」, 官官接待, 「見た目で選んで何が悪いの!」, インターネット
1996年	「自分で自分をほめたい」, 友愛/排除の論理, メークドラマ, 援助交際, ルーズソックス, チョベリバ チョベリグ, 閉塞感 (打開), アムラー, 「ガンと闘うな」 (がんもどき理論), 不作為責任
1997年	失樂園 (する), たまごっち, 時のアセス, ガーデニング, 日本版ビッグ・バン, 透明な存在, もののけ (姫), パパラッチ, マイブーム, 郵政3事業
1998年	ハマの大魔神, だっちゅーの, 環境ホルモン, 貸し渋り, 老人力, ショムニ, モラル・ハザード, 凡人・軍人・変人, 冷めたピザ, 日本列島総不況, スマイルング・コミュニスト, ボキヤ貧
1999年	ブッチホン, リベンジ, 雑草魂, 学校 (級) 崩壊, カリスマ, ミッチー・サッチー, 西暦2000年問題, だんご3兄弟, 癒し, iモード
2000年	おっはー, IT革命, 最高で金 最低でも金, Qちゃん, ジコチュー (ジコ虫), 一七歳, パラパラ, めっちゃ悔し〜い, ワタシ (私) 的には…, 「官」対「民」
2001年	「米百俵, 聖域なき改革,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骨太の方針, ワイドショー内閣, 改革の「痛み」」, 明日があるさ, e-ポリティックス, 狂牛病, 塩爺 (しおじい) , ショー・ザ・フラッグ, 生物兵器 (B C兵器) , ヤだねったら、ヤだね, 抵抗勢力,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D V) , ブロードバンド, 人間て、なかなか死なないもんだ, ファンの皆さま本当に日本一、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002年	タマちゃん, W杯 (中津江村) , 貸し剥がし, 声に出して読みたい日本語, 真珠夫人, ダブル受賞, 内部告発, ベッカム様, ムネオハウス, 拉致, G o d z i l l a
2003年	毒まんじゅう, なんでだろう~, マニフェスト, 勝ちたいんや!, コメ泥

	棒, SARS, 年収300万円, バカの壁, ビフォーアフター, へえ~,
2004년	チョー気持ちいい, 気合だー!, サプライズ, 自己責任, 新規参入, セカチュー, 中二階, 「って言うじゃない…〇〇斬り! って言うじゃない, 残念!!」, 負け犬, 冬ソナ
2005년	小泉劇場, 想定内(外), クールビズ, 刺客, ちょいモテオヤジ, フォー!, 富裕層, ブログ, ホビーマジック, 萌え~
2006년	イナバウアー, 品格, エロカッコイイ(エロカワイイ), 格差社会, シンジラレナ~イ, たらこ・たらこ・たらこ, 脳トレ, ハンカチ王子, ミクシィ, メタボリックシンドローム(メタボ)
2007년	(宮崎を) どげんかせんといかん, ハニカミ王子, (消えた) 年金, そんなの関係ねえ, どんだけえ~, 鈍感力, 食品偽装, ネットカフェ難民, 大食い, 猛暑日
2008년	グ~!, アラフォー, 上野の413球, 居酒屋タクシー, 名ばかり管理職, 埋蔵金, 蟹工船, ゲリラ豪雨, 後期高齢者,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
2009년	政権交代, こども店長, 事業仕分け, 新型インフルエンザ, 草食男子, 脱官僚, 派遣切り, ファストファッション, ほやき, 歴女(レキジョ)

<표3>을 보면 특히, 98년부터 06년 사이의 시대상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예로써, 小渊 首相과 小泉 首相 두 首相을 둘러싼 정치와 관련된 新語·流行語가 늘어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小渊 首相은 당선 당시 사상 최저라는 지지율이었으며, 심각한 불황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사회적 위기 상태였으나 후에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가기도 한다.

小泉 首相은 사상 최대라는 지지율로 당선되어, 경기도 회복기로 접어들지만, 자민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세로 접어든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불안감과 신뢰 할 수 없는 정계의 움직임, 디플레이션 현상 등이 인터넷, 매스컴, 연예인, 본인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풍자적으로 재현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고, 정치적으로 유약한 ‘小渊 首相’을 비하하

는 말이 생겨나며, 小泉 首相을 지지하는 말과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된 新語·流行語가 생겨나게 된다.

### 3. 분야별 시대적 배경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토대로 크게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시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大賞語를 각 연도별로 하나씩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경제 분야

「千円パック」(84) 과자에 청산소다를 넣어 구리코·森永 등 과자회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森永제과가 고안한 과자 팩이다. 1200엔 상당의 과자를 안전하게 포장해서 1000엔에 팔았다.

「100ドルショッピング」(85)<sup>15)</sup> 85년도의 경제를 그대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수출 증가로 인하여 여러 나라 사이의 경제 마찰을 초래해, 中曾根 首相은 국민에게 외제품을 1인당 100달러씩 구입하자라고 호소하고 中曾根 首相도 백화점 쇼핑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地揚げ·底地買い」(86) 광란적인 토지 투기 붐이 본격화되었고, 일본 전국에서 악질적인 토지매매가 성행했다. 「サンキューセット」(87) 맥도날드는 520엔의 햄버거 세트를 390엔에 팔기 시작하면서, 39(サンキュー)세트로 불려 졌으며, 본격적인 햄버거 업계의 경쟁시대가 열렸다. 「ハナモク」(88) 일본경제의 호황 속에서 초임금이 급상승하고, 주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

---

15) ( )안은 연도를 표시한다.

면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해외여행이나 단거리 여행을 도모하는 등 그때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DODA/デューダ (する)」(89) 일본 경제의 호조로 인하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젊은 층에서 보dana은 직장을 선호하게 되고 전직이 붐을 일으켰다. デューダする는 전직하다를 뜻한다.

「バブル經濟」(90)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 호황기는 연호가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져 토지와 주식 등 투기적인 경제 상황은 거품경제를 불러왔다. 「損失補填」(91) 주가 하락으로 인한 대기업의 피해에 따른 손실보충 문제가 발생했고, 「カード破産」(92)은 거품경제의 붕괴를 실감하게 했다.

거품경제 붕괴 후 상품 시장에서는 「洋服の青山」가 실시한 양복 가격파괴로 이어졌다. 「2500円スーツ」(93) 가격파괴는 94년으로 이어지고 「契約スチューデント」(94) 경영 악화로 각 항공사는 계약직 스텝어튜스를 채용하게 되었고, 경제 불황은 계속 이어졌다.

「インターネット」(95) 가입 이용자가 4000만명, 약150개국 즉,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교환 시스템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국제화”의 현실화를 말해준다. 9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경제 성장률도 높았던 해(年)로, 경제와 관련된 선정어는 없었다.

「日本版ビッグ・バン」(97) 금융자유화가 실현되었으며, 「日本列島総不況」(98)은 일본 경제를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 경제기획청 장관을 小淵 내각의 액세서리라고 할 정도였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컴퓨터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NTT DOCOMO에서 전화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iモード」(99), 「IT革命」(00), 「ブロードバンド」, 「e-ポリシー」(01)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혁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한다고 보고 인터

넷 이용을 급속도로 보급시켰다.

「貸し剥がし」(02) 호황기 때 빌려준 곳으로부터 불황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었으며, 「コメ泥棒」(03) 흉년에 따른 농작물의 가격상승으로 쌀을 노리는 도둑이 많았다. 04년은 복합호황기로 관련 선정어는 없었으며, 「富裕層」(05) 「金持ち」에서 「高額所得者」를 거쳐 「富裕層」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었다.

「ミクシィ」(06) 여전히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消えた)年金」(07) 5000만 건이라고 말해지는 기초연금번호에 통합되지 않은 기록사건이 발생했다.

「名ばかり管理職」(08) 잔업수당이나 휴일 출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나 체인점의 실체가 밝혀지고, 「派遣切り」(09)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고용정리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정리대상이 되었다.

각 시대별 경제 분야의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살펴본 바, 80년 중반부터 말까지 일본 경제가 최고조에 달해 모든 분야에서 풍족함과 자신감이 만들어낸 新語・流行語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전 열도의 불황이 강하게 나타나고,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IT산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2. 정치 분야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首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新語・流行語는 전체 84년에서 09년까지 50개 중 1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권교체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鈴虫発言」(84) 록히드 사건<sup>16)</sup>의 田中角栄 전 首相에게 실행판결이 내

---

16) 록히드 사건(ロッキード事件)은 미국의 록히드사가 1천만 달러나 되는 뇌물을 일본 정계에 뿌린 뇌물 수수 사건이다. 1974년 立花隆가 文芸春秋에 쓴 특종 기

려지면서 정치 윤리문제가 최대의 쟁점이었다. 이 상황을 비유해서 中曾根 首相은 「倫理、リンリ」라고 하고 방울벌레가 우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角抜き」(85) 킹메이커로 정계 지배를 이어온 田中角榮의 퇴보를 나타내는 말이다. 「知的水準」(86) 中曾根 首相이 당내 회합에서 외국에 대해 「知的水準が低い。」라고 발언해 일본정계, 미디어의 국제성에 대한 「지적 수준이 낮음」으로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한다.

「“國際”国家」(87) 장기 집권을 끝낸 中曾根 首相이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일본의 국가적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며, 「ペレストロイカ」(88)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일본 내 신문에 매일같이 실리면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이 정착하게 된다.

「ケジメ」(89) 리크루트 사건으로 인하여 정·관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절정에 달했으며, 정치가의 “윤리(倫理)”는 “사어(死語)”가 되었다. 윤리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ケジメ(구분 또는 구별 - 공과사의 구별)」이다.

「“ブッシュ”ホン」(90)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통으로 일이 처리될 만큼 미국에 좌지우지되는 일본과 미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마디다.

「八月革命」(91) 모스크바에서 당해 8월에 발생한 쿠데타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ほめ殺し」(92) 竹下 前 首相에 대해 좌익이 「お金儲けの上手な竹下さん」「恩人を裏切る華麗な“芸”を持つ竹下さん」라고 칭찬하는 듯하지만 竹下 前 首相을 비하하는 의미의 말로 대유행하게 되었다.

「天の声」(93) 정(政)·관(官)·업(業)의 부패구조는 점점 더 심각해져 93년은 “담합(談合)에 의한 종합건설회사의 오직(汚職) 사건이 문제화되었다.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업자간의 담합으로 입찰기업을 결정한 사건으

---

사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1976년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정치인, 고위 관리들이었으며, 현직 수상이었던 田中角榮도 5억 엔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로 이때 지방수장(首長)의 의향을 「天の声」라 일컬었다.

村山富市가 首相 취임 시 「人にやさしい政治」(94)라고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취임사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官官接待」(95), 「不作為<sup>17)</sup>責任」(96) 95년은 부정부패가 많았음을 96년은 관료나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不作為」를 밝히는 해였다.

「郵政3事業」(97) 「郵政3事業の民営化」의 구체화가 거론되었고, 「冷めたピザ」, 「ボキャ貧」(98), 「ブッチホン」(99) 뉴욕 타임즈에서 首相에 취임한 小淵를 비하해서 나타낸 말과 小淵 자신이 「ボキャブラリーが貧困」이라 하면서 「ボキャ貧」이란 新語를 만들어내었다.

99년에는 관료나 의원, 대기업의 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면서 생기는 말로 「ブッチホン」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官」对 「民」(00) 知事선거에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현 지사를 이기고 당선 되면서 민중이 조직에 이긴 선거로써 주목을 받았다.

「米百俵, 聖域なき改革,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骨太の方針, ワイドショー内閣, 改革の「痛み」」(01) 小泉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사용한 「米百俵」, 수상의 슬로건인 「聖域なき改革」, 「改革の「痛み」」,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 재정자문회의의 「骨太の方針」, 小泉정권을 나타내는 「ワイドショー内閣」 등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다.

「拉致」(02) 북한의 일본인 拉致문제로 시끄러웠던 해였으며, 「毒まんじゅう」(03) 자민당 총재인 野中広務 전 간사장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小泉 首相을 지지하는 일부의 정치가를 비난한 말이다.

「サプライズ」(04) 小泉 내각의 과격적인 인사와 계획이 없었던 방북으로

---

17) 『법률』 부작위. 힘써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小泉劇場」(05) 小泉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는 해였고, 「格差社会」(06) 소득이나 교육,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원화가 진행되었으며, 小泉 정권의 실패를 나타내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宮崎を)どげんかせんといかん」(07) 東国原英夫·宮崎県 지사가 현의회(県議会)에서의 소신포명으로 “정체의 토대가 된 낡은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방언을 섞어서 연설한 것이다. 「居酒屋タクシー」(08) 심야에 관료들이 이용하는 택시 운전사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비리사건이 있었고, 「政權交代」(09)는 당해 8월에 열린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의석 300석에서 119석으로 격감되어 참패를 했다.

정치 분야는 전반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감과 기대감이 首相의 행동에 주목되면서 首相을 둘러싼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냈고, 관료와 공무원이 연루된 부정부패가 표적이 되고 있었다.

### 3.3. 사회 분야

한해 한해의 이슈화된 사건들과 드라마, 영화, 독서를 많이 하는 일본인을 나타내듯 新語에서도 출판물에서 많이 인용되어 만들어졌다.

범국민적 스포츠인 야구에 관련된 용어와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풍속적인 용어도 보이고 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オシンドローム」(84) 인기절정의 NHK 연속 텔레비소설 『おしん』에 의해서 新語가 만들어졌다. 주인공의 모습이 전 국민의 공감을 불러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分衆」(85) 경제적 절정기를 목전에 둔 일본사회의 가치관이 종래의 균질적인 “大衆”이 아닌 “分衆”으로 나타났으며, 「家庭内離婚」(86) 전통적인 결혼관의 붕괴를 엿볼 수 있는 말

이다.

「「なんぎやなあ」, 「鉄人」」(87) 개막부터 계속지고 있는 한신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고 오사카TV 관계자가 한 말로 아쉬움과 참을 수 없음을 표현 한 말이었으며, 「鉄人」프로야구의 연속 출장 시합 신기록을 달성한 衣笠 選手를 가리키는 말이다.

88년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遠赤 (効果)」(88) 붐을 일으켰다. 「Hanako」(89) 여성잡지 『Hanako』의 콘셉트이나 애독자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여성을 가리켰다.

「オヤジギャル」, 「ちびまる子ちゃん」(90) 「オヤジギャル」만화 주인공과 「ちびまる子ちゃん」의 주제가가 대유행을 했으며, 「火砕流」(91) 雲仙岳가 200년 만에 대 분화를 한 해로 화제가 되었다. 「もつ鍋」(92) 거품경제 시기에는 グルメ가 붐이었던 반면,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소박함을 나타내는 「もつ鍋」요리가 전국적으로 붐이 되었다. 「Jリーグ」(93) 일본 전국에 새로운 스포츠의 붐이 일어났고, 종래의 엄마의 모습에서 동떨어진 갈색으로 염색한 화려한 젊은 엄마 집단이 급증하면서 「ヤンママ」(94)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

「がんばろうKOB E」(95)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당시 고베 야구단 오릭스는 유니폼에 「がんばろうKOB E」의 슬로건을 붙이고 시합에 나가 우승까지 하면서 고베 시민에게 큰 힘을 주게 되었으며, 이 슬로건이 주목을 받았다. 「自分で自分をほめたい」(96) 바르셀로나와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연속으로 메달을 딴 뒤 有森가 한 말로 전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失樂園 (する)」(97) 일본 경제신문에 연재된 『失樂園』이 영화화되면서, 「불륜」을 「失樂園する」로 바꿔 말하게 되었고, 「環境ホルモン」(98)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환경문제가 중요시 된 해였다.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지친 사회인에게 보내는 「癒し」(99) 피아노 독주 곡이 대 히트했다. 「ジコチュー (ジコ虫)」(00) 공공장소의 캠페인으로 자기중심이라는 ジコチュー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ジコ虫로 나타내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狂牛病」(01) 광우병(BSE)이 발생하게 되었고, W杯 (中津江村) (02) 한·일 공동으로 2002 FIFA월드컵이 개최되었으며, 「SARS」(03)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했다.

「冬ソナ」(04) 99년 영화 「쉬리」에 이어 「겨울 소나타」, 한국 출신 가수인 보아가 인기를 모으면서 한류의 봄을 이루었다. 「ブログ」(05) 싼 비용으로 웹 블로그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블로그가 인기를 모았으며, 「脳トレ」(06) 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트레이닝 법으로 뇌의 연령을 알아보는 게임이 유행했다.

「ネットカフェ難民」(07) 일은 하고 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net cafe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ゲリラ豪雨」(08) 국소적 집중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도시의 기온상승이 초래하는 열섬현상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蟹工船」<sup>18)</sup>(08) 小林多喜二의 1929년작 소설로 좌익문화의 퇴조와 함께 잊혀져 갔으나, 08년 5만부 이상 팔려나가면서 화제가 되었다. 소설 속 노동자들의 모습이 빈부 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일용직의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현대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新型インフルエンザ」(09)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

---

18) 『蟹工船』 小林多喜二의 작품으로 혹사당하는 선상 노동자들이 비참한 현실과 투쟁을 그리는 내용으로 2008년도 초 우연히 『蟹工船』을 읽은 서점 주인이 공감하면서, 메인코너에 배치하게 되고, 일주일에 200권 이상 팔리기 시작했다. 소설 속 노동자들의 모습이 빈부 격차의 심화, 비정규직, 일용직의 고용 불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현대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정효섭(2009), 『월간 일본어 저널』 1월호 (주)다락원 p.18.

었다.

사회 분야의 187개어 중 스포츠 관련어 35개로 그 중에서도 범국민 스포츠인 야구에 관한 新語·流行語가 가장 많았으며, 올림픽, 축구 등에 관심을 보였고, 개그맨의 익살스러운 표현과 드라마나 만화 주인공의 대사가 新語·流行語가 되었다.

호황으로 인한 만족감과 자신감, 불황에 따른 불안감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등,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 불안에 대한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들이 많은 新語·流行語를 발생시켰다.

사회 분야에서의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은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언어적 요인, 언어 감각적 요인 등, 4가지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분야별 시대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新語는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생겨나고 있고, 流行語는 언어적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小淵惠三 정권 시기인 98년엔 계속된 불황과 사상 최저라는 지지율로 당선 되면서, 뉴욕 타임즈에서까지 비하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小淵를 가리키는 많은 말들이 생겨났다. 반대의 경우인 小泉純一郎 정권 시기인 01년은 사상 최고라는 지지율로 당선되어, 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말들이 생겨났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생겨난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자세히 살펴본다.

#### 4.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경제,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大賞語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84년부터 09년까지 26회에 걸쳐 新語・流行語 大賞語에 선정된 大賞語 중 首相과 관련된 大賞語만을 따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首相 관련 新語・流行語 大賞語<sup>19)</sup>

관련 人物	首相 관련 新語・流行語 大賞語
田中角栄 首相	<p>鈴虫発言(84) : 中曾根 首相이 록히드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田中角栄 전 首相을 비유해서 한 말로 당해 총선거는 정치 윤리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정치가들이「倫理、リンリ」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마치 방울벌레가 우는 것 같다는 의미이다.</p> <p>角抜き(85) : 킹메이커로써 정계지배를 계속해 온 田中角栄元 首相이 쓰러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알맞게 나타내는 말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p>
中曾根康弘 首相	<p>「100ドルショッピング」(85) : 85년도의 경제를 그대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수출 증가로 인하여 여러 나라 사이의 경제 마찰을 초래했다. 中曾根 首相은 국민에게 외제품을 1인당 100달러씩 구입 하자라고 호소하면서 中曾根 首相도</p>

19) 新語・流行語 大賞語 [www.singo.jiyu.co.jp/index.html](http://www.singo.jiyu.co.jp/index.html)

大塚明子(2003), 『新語死語流行語—こんな言葉を生きてきた』 集英社.

	<p>백화점 쇼핑을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p> <p><b>知的水準(86)</b> : 中曾根 首相이 당내 회합에서 외국에 대해 「知的水準が低い」라고 발언해 일본정계, 미디어의 국제성에 대한 지적 수준의 낮음으로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했다.</p> <p><b>“國際”国家(87)</b> : 장기집권을 끝낸 中曾根 首相이 가장 많이 발언한 말로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일본의 국가적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다.</p>
海部俊樹 首相	<p><b>“ブッシュ”ホン(90)</b> :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통으로 일이 처리될 만큼 미국에 좌지우지되는 일본과 미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마디이다.</p> <p><b>重大な決意(91)</b> : 리크루트 사건<sup>20</sup>, 공화 사건 등 대형의혹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치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폐안되고, 이것에 항의하는 자민당 개혁파 4명의 의원에 대해서, 首相이 직접 한말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p>
竹下 登 首相	<p><b>ほめ殺し(92)</b> : 「佐川急便」사건<sup>21</sup>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竹下 전 首相에 대해 좌익이 「お金儲けの上手な竹下さん」「恩人を裏切る華麗な“芸”を持つ竹下さん」라고 칭찬하는 듯하지만 竹下 전 首相을 비하하는 의미의 말로 대유행했다.</p>
村山富市 首相	<p><b>人にやさしい政治(94)</b> : 村山富市가 首相 취임 당시 연설에서 「人にやさしい政治」라고 한 말이다.</p>
小淵恵三 首相	<p><b>ボキャ貧(98)</b> : 小淵 首相이 기자단의 회견 중 자신을 낮추어 한 말로, 자신은 어휘가 부족하다, 「ボキャブラリーが貧困」이라고 표현했다. 「ボキャ貧」이라는 新</p>

	<p>語를 만들어냈다. 반대로, 조어능력이 뛰어난이 입증된 셈이 되었다.</p> <p>「冷めたピザ」(98) : 首相에 취임한 小淵를 분석한 사람의 말로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何をしても食べられない”라는 것이 「冷めたピザ」의 의미로 小淵를 비하한 말이다.</p> <p>“ブッチ”ホン(99) : 갑자기 걸려 온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もしも、ケイゾーです、オブチです。」라며, 관료나 의원, 대기업의 사장뿐만이 아니라 전자메일을 보낸 일반인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면서 생기는 말이다. 그 외, 受賞 大賞語는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에 「真空総理」 「人柄の小淵」 등의 말이 생겨났다.</p>
<p>小泉純一郎 首相</p>	<p>米百俵, 聖域なき改革,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骨太の方針, ワイドショー内閣, 改革の「痛み」(01) : 小泉 首相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사용한 말인 米百俵,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首相의 슬로건인 聖域なき改革 여기에 동반하는 改革の「痛み」, 首相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 재정자문회의의 「骨太の方針」, 小泉 정권에 붙여진 「ワイドショー内閣」이다.</p> <p>e-ポリティックス(01) :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를 말하며, 01년 6월 창간된 小泉 내각 메일 매거진에는 당시 10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쇄도했다.</p> <p>抵抗勢力(01) : 小泉 내각이 추진하는 성역 없는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p>

	<p><b>毒まんじゅう(03)</b> : 정계 은퇴를 결의한 野中広務 전 간사장이 小泉 首相의 지지를 둘러싼 일부 정치가를 비난할 때 사용한 말이다.</p> <p><b>サプライズ(04)</b> : 英語 surprise는 「놀라게 하다。」의 의미인데, 小泉 首相에 있어서는 단지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차 내각에서 田中真紀子 외상 등 내각을 조직함에 있어서 의외로 여성을 채용했으며, 04년 7월 참의원 선거전에 갑자기 방북해서 켄킨스(Jenkins)씨를 돌려 달라고 김정일에게 추궁하는 행동 등 小泉流 サプライズ를 의미한다.</p> <p><b>小泉劇場(05)</b> : 05년 9월 중의원 선거는 小泉 首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造反」「刺客」「くのいち候補」가 등장하였다. 우정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단순한 쟁점 등에 의한, 마치 「小泉劇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 小泉가 이겼다. 小泉 首相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여기저기에서 노출시킨 말이다.</p> <p><b>刺客(05)</b> : 05년 9월 중의원 선거 시 小泉 首相은 우정국 민영화를 반대하는 자민당 후보자 대신 대립 후보자를 내세우는데 대립 후보자를 「刺客」라고 불렀다.</p>
<p>福田康夫 首相</p>	<p><b>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08)</b> :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던 福田康夫 首相은 「国民からは他人事のように見えるが」라는 질문에 대해 「私は自分自身を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라고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p>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를 살펴 본 바,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小泉純一郎 首相(6)과 관련된 新語·流行語가 大賞으로 선정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小渕恵三 首相(4), 中曾根康弘 首相(3), 田中角栄 首相(2) 순으로 이어진다.

그 외, 정치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やるしかない」(86), ペレストロイカ(88), 「ふつうは“汚職”と申します」(88), ケジメ(89), 『壁』開放(89), スペシャルゲスト(90), 八月革命(91), 上申書(92), 新·新党(94), 無党派(95), 官官接待(95), 友愛/排除の論理(96), 閉塞感(打開)(96), 不作為責任(96), 郵政3事業(97), 「凡人·軍人·変人」(98), スマイル・コムニスト(98), 「官」対「民」(00), 塩爺(しおじい)(01), ショー・ザ・フラッグ(01), 生物兵器(B C兵器)(01), 拉致(02), マニフェスト(03), 自己責任(04), 中二階(04), (宮崎を)どげんかせんといかん(07), 居酒屋タクシー(08), 政權交代(09), 脱官僚(09) 등이 있다.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는 대부분이 정권교체의 이유가 되는 뇌물수수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정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강력한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포명은 경제회생을 바라는 강한 국민의 바람이 더해져 新語·流行語 大賞語로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 리크루트 사건 : 1988년 6월 일본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를 비롯한 정계 거물급 인사들이 리크루트사(社)로부터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식을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폭로되어 이에 연루된 각료를 비롯하여 다케시타까지 사임하게 된 뇌물수수 사건이다.

21) 「佐川急便」 사건 : 1980년대 급성장한 「佐川急便」의 佐川회장은 고액의 정치현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1992년에 金丸信에게 5억 엔의 부정 현금을 준 것이 발각되어, 정계를 뒤흔들었다.

## 5. 首相別 新語・流行語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

首相과 관련된 大賞語만을 살펴본 결과 그 시대의 경제, 정치, 사회 동향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5절에서는 주요 首相別 시대상을 정리해 보고, 新語・流行語 大賞에 선정된 大賞語의 의미와 발생요인, 사회적 의미 등을 분석해 본다.

주요 首相別 재임 기간과 재임일수를 먼저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 5> 주요 首相一覽表<sup>22)</sup>

No	首相名	在任期間	在任日数
01	田中角榮	1972年7月7日～1974年12月9日	886日
02	中曾根康弘	1982年11月27日～1986年11月6日	1,806日
03	竹下 登	1987年11月6日～1989年6月3日	576日
04	海部俊樹	1989年8月10日～1990年11月5日	818日
05	村山富市	1994年6月30日～1996年 1 月11日	561日
06	小淵恵三	1998年7月30日～2000年4月5日	616日
07	森 喜朗	2000年4月5日～2001年4月26日	387日
08	小泉純一郎	2001年4月26日～2006年9月26日	1,980日
09	安倍晋三	2006年9月26日～2007年9月26日	366日
10	福田康夫	2007年9月26日～2008年9月24日	365日

22) 御厨貴(2003), 『歴代首相物語』 株式会社新書館 pp. 198～203, pp.228～279 참조.

<표5>는 역대 首相 중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과 관련이 있는 首相의 재임기간과 재임일수를 정리 한 것이다.

田中角栄 首相은 72년 7월 7일부터 74년 12월 9일까지 재임한 首相이지만, 퇴임한 후 76년에 록히드 사건에 연루되어 83년 실형이 내려지면서 84년까지 이어져 정치 윤리문제의 중요성이 야기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던 首相이다.

위의 10명의 首相 중 자신의 의지로 비교적 원만한 퇴임을 한 首相은 中曾根康弘 首相, 村山富市 首相, 小泉純一郎 首相 3명이며, 그 외 首相은 선거의 패배나 정쟁, 또는 뇌물수수 사건이나 건강상태 악화로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임하게 된다.

여기서 통상 재임일수를 살펴보면, 재임기간을 다 마치고 원만한 퇴임을 한 首相은 먼저, 小泉純一郎 전 首相이 1,980일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首相이었으며, 다음이 中曾根康弘 전 首相으로 1,806일이었다. 村山富市 전 首相은 561일이었다. 통상 재임일수가 가장 짧은 首相은 福田康夫 전 首相으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365일 만에 갑자기 사퇴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표 6 > 首相별 主要 事件과 관련 新語·流行語<sup>23)</sup>

在任期間	관련 人物	主要 事件	退任 理由	관련 新語·流行語
1972년7월 7일 ~1974년12월9일	田中 角栄	72 일중 공동성명 발표 73 円의 변동 외환 상장제 이행,	「金脈과人 脈」 문제 재임일수: 886일	鈴虫発言(84) 角抜き(85)

23) NHK放送文化研究所 (2004),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第六, 七版]』 日本放送出版協會, 御厨貴(2003), 『歴代首相物語』 株式会社新書館 pp. 198~203, pp.228~279 참조.

		김대중 사건, 제1차 오일쇼크 74 물가의 급상승, 「金脈과 人脈」 문제 *76 록히드 사건 발각		
1982년11월27일 ~1986년11월6일	中曾根 康弘	82 해외여행 붐 83 록히드 사건 85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공포 86 東京 정상회담 개최	선거에서 패배 재임일수: 1,806일	「100ドルショ ッピング」(85) 知的水準(86) “国際”国家 (87)
1987년11월6일 ~1989년6월3일	竹下 登	87 지가 급등, 블랙먼데이 88 리크루트 사건, 일미간 수입 자 유화 합의, 전국지역 만들 기 일역엔 교부 결정 89 昭和 천황 승화 소비세 실시 *92 「佐川스캔들」	리크루트 사건 재임일수: 576일	ほめ殺し(92)
1989년8월10일 ~1990년11월5일		89 독일·베를린의 장벽 붕괴	政争(海部 おろし)	“ブッシュ”ホン (90)

	海部 俊樹	90 동·독 통일, 버블경제 붕괴, 걸프전쟁 발발	재임일수: 818일	重大な決意 (91)
1994년6월30일 ~1996년1월11일	村山 富市	94 연립내각 탄생 95 阪神·淡路 대 지진, 오움진리 교 사건, 沖繩 현 미군 초등 학생 여아 폭행 사건, 全日空 857편 공중납치 사건	원만한 퇴임  재임일수: 561일	人にやさしい 政治(94)
1998년7월30일 ~2000년4월5일	小淵 恵三	99 i-mode 서비스 개시, 취직빙하 기, 유로 시작 00 有珠山 분화, 개호보험 제도 발족	死去·病氣  재임일수: 616일	ボキャ貧(98) 「冷めたピザ」(98) ブッチホン (99)
2001년4월26일 ~2006년9월26일	小泉 純一郎	01 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대출신용 철회, 이라크 전쟁 02 한일 월드컵 공 동개최, 狂牛病, SARS, 북 납치 피해자 5명 귀	원만한 퇴임  재임일수: 1,980일	米百俵, 域なき改革, 恐れず怯まず 捉われず, 骨太の方針, ワイドショー内 閣, 改革の 「痛み」(01)

		<p>국</p> <p>03 米·英, 이라크 공습 개시, 일본 우정회사 발족</p> <p>04 首相 재방북→ 북 납치 피해자 5명의 아이들 귀국</p> <p>05 京都 의정서 발효, 우정 민 영화법안, 참의 원부결, 중의원 해산,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민 영화 법안 성립</p> <p>06 북한 미사일 발사, 제로금리 정책 해제</p>		<p>e-포리티엑 스(01) 抵抗勢力(01) 毒まんじゅう (03) サプライズ(04) 小泉劇場(05) 刺客(05)</p>
<p>2007년9월26일 ~2008년9월24일</p>	<p>福田 康夫</p>	<p>07 우정 민영화, 미 서브프라임 08 중국산 냉동 교 자·식재에서 살충제 검출로 일·중 양정부</p>	<p>총재선거 패배  재임일수:3 65일</p>	<p>あなたとは違 うんです(08)</p>

		가 조사개시, 후기 고령자 의 료제도 시작, 北海道 洞爺湖 정상회담 개최		
--	--	--	--	--

(\*는 퇴임 이후의 사건임)

<표6>은 84년부터 09년까지의 각 首相의 시대별 주요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관련 首相의 퇴임이유, 관련된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6>에서 제외된 首相 중 宇野宗佑(89.6.3~8.10)<sup>24)</sup> 首相은, 여성과의 스캔들로 인해 단 69일만에, 宮沢喜一(91.11.5~93.8.9) 首相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644일만에 퇴임하게 되었다.

細川護熙 (93.8.9~94.4.28) 首相은 자신의 금전문제로 인하여 263일만에 퇴임했으며, 橋本龍太郎(96.1.11~98.7.30) 首相은 소비세로 인한 참의원 선거 패배로 64일만에 퇴임하게 되었고, 麻生太郎(08.9.24~09.9.15) 首相은 당내의 퇴진의 억압에 의해 358일만에 퇴임하게 되었다. 위 5명의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외, 大賞語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래 4명의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는 다음과 같다.

羽田孜(94.4.28~6.30) 首相은 「~というふうに」, 「アレする」, 「真正面から」, 「率直にいて」 등의 말들이 수식어로 羽田 首相을 비유했다. 그리고 정책협의 파벌로 인해 퇴임하게 되었다.

森喜郎(00.4.5~01.4.26) 首相은 小淵 首相이 건강악화로 퇴임한 후 즉위

24) ( )안은 재임기간을 나타낸다.

한 首相으로 이름을 음독으로 읽어 신기루(シンキロウ)라 부르면서 森 정권을 「シンキロウ内閣」라고 비유하는 말이 생겨났다. 森 首相은 잦은 실언이 보도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퇴임하게 되었다.

安倍晋三(06.9.26~07.9.26) 首相은 건강악화로 인해 퇴임하였으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首相 즉, “KY (분위기 파악을 못하다)”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KY어<sup>25)</sup>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신표명의 「美しい国」가 주목을 받았다.

鳩山由紀夫(09.9.16~10.6.2) 首相에 대한 여러 말들이 생겨났는데, 262일 만에 퇴임했으며 鳩山の 닉네임인 「宇宙人」과 「故人献金」, 鳩山 首相을 추켜올린 이산화탄소의 삭감 목표를 뜻하는 「25%削減」, 鳩山 首相의 아내인 幸(みゆき)씨가 출판한 대담집에서 말한 「UFOで金星に」가 후보어로 올랐지만, 선정되지는 못했다.

다음은 각 시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와 정치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제지표와 정당의 지지율을 <표7><그림1>과 <표8><그림2>로 살펴본다. 비교를 위해 83년도의 데이터부터 0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7> 경제 성장률 추이<sup>26)</sup> (단위: %)

연도	83	84	85	86	87	88	89	90	91
경제성장률	3.5	4.8	6.3	1.9	6.1	6.4	4.6	6.2	2.3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경제성장률	0.7	-0.5	1.5	2.3	2.9	0.0	-1.5	0.7	2.6

25) 주10)과 동일.

26) <http://www2.ttcn.ne.jp/honkawa/4400.html> (자료: 内閣府 SNA 사이트) 참조.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경제성장률	-0.8	1.1	2.1	2.0	2.3	2.3	1.8	-3.8	-1.8

여기서 경제성장률이란 실질 GDP 대비 전년도 증감률을 말하며,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이 적지 않지만 장기적인 경향으로서는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 저성장기로 옮겨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아래 <그림1>의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림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85년 플라자 협정에서의 엔화 평가절상에 대해 합의한 이후 86년 일본의 수출은 전년대비 5.1%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85년 6.3%에서 1.9%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86년부터 87년에는 1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85년 5%였던 기준금리를 87년에는 2.5%로 인하한데 힘입어 민간소비 및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87년부터 90년까지의 일본경제는 평균 5.8% 성장했다.

90년대에는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 92년에서 94년까지는 1%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98년에서 9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90년대 일본은 평균 1.1% 저성장기였다.

00년대에 접어들어 일시적 복합호황 이후 저성장 위기를 재현하는 시기였다. 양적완화정책과 IT부문 호황, 중국경제 성장 등의 효과로 02년에서 04년의 일본경제는 복합호황기였다.

8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일본경제는 08년 -3.8%로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09년도는 경기회복의 과정에 있지만 -1.8%라는 전후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표8>은 83년부터 08년까지의 연도별 정당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5년마다 한번 씩 조사한 것으로 지지정당의 추이를 따르고 있다.

<표8> 연도별 정당 지지율<sup>27)</sup>

구 분	83	88	93	98	03	08
자 민 당	41	39	28	24	25	26
자민당 이외(민주당포함)	25	20	27	20	15	23
민 주 당				8	5	15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32	38	41	52	57	46

큰 움직임으로서는 자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과 층이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지지정당이 없는 이를테면 무당과 층에 대해서는 83년 32%에서 계속 증가 했고, 88년 이후는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7) NHK放送文化研究所(2010),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第七版]』 日本放送出版協会 pp.73~1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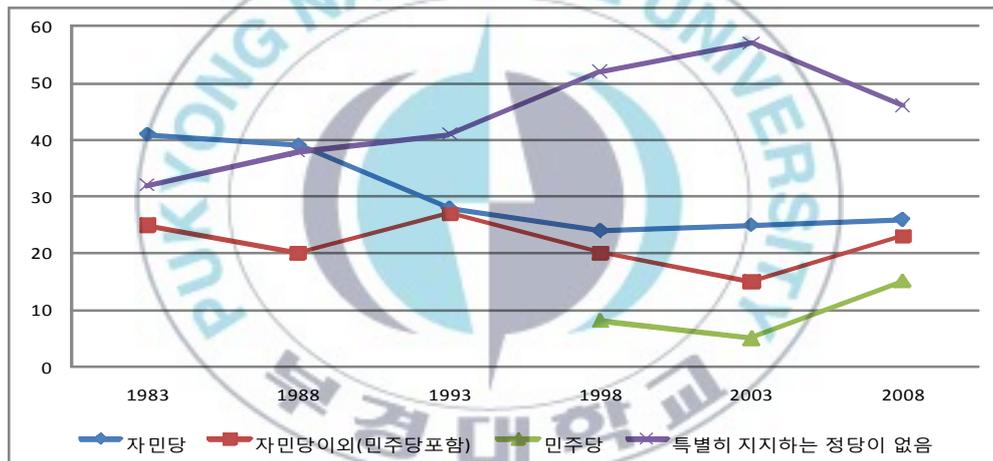
03년에는 57%로 즉, 60% 가까이 차지함에 이르렀다.

그런데 08년에는 46%로 감소했다. 정권교체기로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민당과 자민당이외의 대비를 보면, 양자의 비율은 15년 단위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항상 자민당 측이 높았다.

다른 점은 무당파가 늘었다는 것이며, 무당파 층의 동향은 차츰 양자가 역전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연도별 정당 지지율



09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대패하였으며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림2>와 같이 08년에는 자민당의 지지율이 자민당이외의 정당과 민주당보다도 높고, 더욱이 자민당 지지율은 약간의 상승경향이 있었지만, 09년에는 크게 바뀐 셈이 되었다.

01년에서 06년의 小泉 정권기 특히, 05년까지는 小泉 首相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03년의 자민당 지지율은 98년에 비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小泉 首相의 지지율은 자민당의 인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경기 회복기를 맞이하였지만, 저성장기였으며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자민당의 신뢰 회복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표7><표8>, <그림1><그림2>를 통해 83년부터 09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首相의 재임기별 주요사건과 首相의 퇴임 이유, 시대상을 토대로 新語·流行語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은 『現代用語の基礎知識－1991～2010年分特別パック』 自由国民社를 참고로 한다.

### 5.1. 田中角栄 首相

72년부터 74년까지 재임한 首相으로 당선 시 각종 기관의 내각 지지율 조사에서 70% 전후라는 지지를 받았다. 재임기간 동안 일·중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켰으며, 땅값이나 물가의 급상승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73년 김대중 사건이 발생하였고, 제4차 중동전쟁으로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886일 만에 수상에서 물러나고, 퇴임 후 76년엔 록히드 사건에 연루되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의 록히드사가 1천만 달러나 되는 뇌물을 일본 정계에 뿌린 뇌물수수 사건이다. 록히드 사건에 연루되어 자민당에서 탈당하게 되었고, 무소속으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閥將軍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다.

### 5.1.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sup>28)</sup>

#### ■ 鈴虫発言<sup>29)</sup>의 배경

83년, 田中角榮 전 首相에 록히드 사건에 대한 실행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83년 말 총선거에서는 정치윤리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83년 12월의 중의원, 참의원 더블선거는 「정책 테마가 없는 선거」로 시종일관 강조되었다. 그때 田中角榮의 일심 유죄판결이 정책논쟁이 되었고, 여기서 야당 측이 제안한 것이 정치윤리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정치윤리」 문제로 떠들썩했으며, “「倫理 リンリ、リンリ」とまるで鈴虫が鳴いている ようじゃないか?”라고 말한 사람이 中曾根 首相이다. 이것을 누군가가 「鈴虫発言」이라고 명명하면서 流行語가 되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의 록히드사가 1천만 달러나 되는 뇌물을 일본 정계에 뿌린 뇌물수수 사건이다. 74년 立花隆가 『文芸春秋』에 쓴 특종 기사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76년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정치인, 고위 관리들이었으며, 현직 首相이었던 田中角榮도 5억엔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들에게 55년 이후 38년간 집권한 일본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 주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의 짧은 학력을 극복하고 首相이 되었다는 田中角榮 신화에 대한 환상을 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8) 自由国民社編集部(2010), 『現代用語の基礎知識-91~2010年分特別パック』 自由国民社, 木村伝兵衛(2005), 『月刊 基礎知識-もつと基礎知識』 11月号 自由国民社.

29) 木村伝兵衛(2005), 『月刊 基礎知識-もつと基礎知識』 11月号 自由国民社.

## ■ 角拔きの 배경

"つのぬき"가 아니라 "かくぬき"이며, 킹메이커로써 정계 지배를 계속해 온 田中角栄 전 首相이 쓰러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알맞게 나타내는 말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田中角栄 전 首相은 퇴임 후에도 지속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록히드 사건으로 인하여 자민당을 탈당하지만 무소속 의원이면서 자민당 주변 정치인들의 뒤에서 정계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田中角栄 전 首相을 매스컴에서는 闇將軍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고, 정치계의 중요 인사권은 田中角栄 전 首相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했으며, 킹메이커의 위치에 있었다. 85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언어 장애와 행동 장애가 남아 정치 활동이 불가해지면서 田中角栄 전 首相의 권력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5.1.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鈴虫発言」, 「角抜き」— 이 말들은 84년, 85년에 이슈화 되었던 사건들과 관련된 田中角栄 전 首相을 가리켜 한 말들로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호황기를 맞이하여 버블경제기였으며, 퇴임 후 정계에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했던 田中角栄 전 首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높았다.

록히드 사건을 통해 38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생겨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뇌물사건으로 정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정치윤리 문제가 사회 문제시되었다.

오랫동안 정계 지배를 독주했던 田中角栄 전 首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정계의 영향력을 잃게 됨을 너무도 적절하게 나타낸 「角抜き」야말로 당

시 정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다.

「鈴虫発言」, 「角抜き」가 마스크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정치윤리가 거론되었으며, 田中角栄라는 신화가 무너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신뢰에 불신을 안겨주면서 지지율 역시 하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즉, 사회적 발생 요인으로 인하여 자민당을 불신하는 국민들의 심리상태와 정치윤리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 5.2. 中曾根康弘 首相

鈴木善幸 전 首相은 首相 취임 이래 여러 번 발언을 수정한다던지, 발언에 허점이 들어나는 등, 이러한 이유로 대미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었으며, 여당 내 친미파에 의해 내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82년 10월에 이르러 총재선거에 돌연 불출마를 표명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田中角栄 전 首相의 지지를 받아 中曾根康弘가 당선되게 되었다.

82년부터 87년까지 재임했으며, 84년부터 09년까지 통상 재직일수가 긴 首相 중 1,806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85년도에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수출 증가로 인하여 여러 나라 간의 경제마찰을 초래했고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버블경제로 이어졌다. 86년에는 광란적인 토지 붐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 전국에서 악질적인 토지매매가 성행했다.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작은 정부’를 목표로 3공사 즉 일본 국유철도, 일본 전신전화공사, 일본 전매공사의 민영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던, 鈴木善幸 전 首相이 사임하고, 中曾根康弘 首相에게 계승되었다.

中曾根 首相은 신보수주의와 국제 공헌이라는 이념 하에 ‘증세 없는 재

정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개혁, 국철을 포함한 3공사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고, 세출삭감과 3공사의 민영화 등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3공사의 민영화가 사회당의 지지기반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사회당의 붕괴는 자민당 정권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정당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매상세(売上税)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中曾根康弘首相은 당선 뒤 매상세 도입을 시도하면서 「공약 위반」으로 추궁 받게 되었고,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87년의 통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매상세 도입 철회를 한 뒤, 지지율이 회복되었지만 같은 해 11월에 首相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 5.2.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 「100ドルショッピング」의 배경

눈부신 경제발전과 수출 증가로 인하여 여러 나라 사이의 경제 마찰이 심각하게 되었고, 1달러당 200엔에 해당하는 엔고가 발생했다. 미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한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에게 외국제품의 구입, 특히 미국제품을 최저 100달러씩 구입하자고 외치며, 中曾根 역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환율은 100달러당 1万3千円 상당) 中曾根는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그때 당시의 광고는 “수입품을 구매해 문화생활을 즐기자.”<sup>30)</sup>였다.

30) “輸入品を買って、文化的な生活を送ろう。”

## ■ 知的水準発言の 배경과 “國際”國家의 배경

86년, 中曾根 首相이 「일본은 이 정도의 고학력 사회가 되었으며 상당히 인텔리гент한 지역사회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흑인이라든지 푸에르토리코인이라든지, 멕시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인종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적수준은) 아직 많이 낮다.»<sup>31)</sup>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것이 미국의 흑인, 푸에르토리코인은 물론, 대다수의 미국인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인종 차별 발언으로서 큰 문제가 되었다. 中曾根 首相은 “일본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은 다민족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그것이 곤란하다는 의미다.”<sup>32)</sup>라고 변명했다. 일본에서는 아이누민족 단체에서 “단일 민족에 대한 발언은 아이누민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sup>33)</sup>라고 하며 항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國際”國家」의 배경은 장기 집권을 끝낸 中曾根 首相이 가장 많이 발언한 말로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일본의 국가적 열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용어이다.

### 5.2.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경제 발전으로 인해 호황기를 맞이하지만, 여러 나라 간의 무역 마찰, 특히 미국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 1인당 최저 100달러씩 구입하자는 적극적인 中曾根 首相의 대처는 鈴木善幸 전 首相으로 인해

31) “日本はこれだけ高學歷社会になって、相当インテリгентなソサエティーになってきておる。アメリカでは黒人とかプエルトリコとかメキシカンとか、そういうのが相当おって平均的に見たら（知的水準は）非常にまだ低い。”

32) “日本は単一民族だから高い教育水準を保つことが出来るが、アメリカは多民族社会だから日本に比べてそれが困難という意味。”

33) “単一民族発言はアイヌ民族の存在を無視するもの。”

악화된 일미 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일 간의 통상과 경제가 심각했음을 말해 주고, 미일 관계 역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집권 내내 가장 많이 발언했었다는 「“国際”国家」가 주는 의미는 일본이 국제 사회 속에서 산다는 국가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5.3. 小渊惠三 首相

불황의 장기화로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었다. 95년부터 경기가 약간 회복의 징조가 보이자 재정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일본정부는 97년 9조엔 대의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97년 세입은 약 2조엔 가량 늘고 세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재정적자 규모는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소비세 인상은 막 살아나려던 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소비세를 올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98년 7월의 참의원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퇴임한 橋本龍太郎의 뒤를 이어 小渊惠三로 이어졌다.

小渊惠三 首相은 98년 7월부터 00년 4월까지 616일 동안 재임하였으며, 7월 내각이 발족할 당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총리를 원했지만 小渊는 그 동안에 맡은 관직이 관방 장관(정부 대변인)과 외무장관이 고작일 뿐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조차 “3일이면 오래간다.”는 말을 듣는 한편, “冷めたピザ”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정작 小渊 본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 별로 개의치 않고 각 계각층으로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는가 하면, 빼곡한 일정 속에서도 거리로 나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점차 사라져 갔으며, 강력한 경제회생 정책이 빛을 받으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50%를 넘는 반전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고 휴식을 모르는 평소 습관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한데다, 당시 연립 정권을 이루고 있던 자유당의 연정 탈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은 小渊는 2000년 4월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경기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 5.3.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 ボキャ貧의 배경

小渊 首相이 기자회견의 회견 중 자신을 가리켜 한 말로, 당시 小渊 首相은 橋本 전 首相에 비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 매스컴의 대응에 서툴다고 말하면서, 小渊 首相 자신을 스스로 낮춰 말한 것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자신은 “어휘가 부족하다”<sup>34)</sup>라고 말하면서 「ボキャ貧」이라는 新語가 만들어졌다. 小渊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반대로 조어 능력이 뛰어난이 입증된 셈이 되었다.

#### ■ 「冷めたピザ」의 배경

首相에 취임한 小渊를 분석한 한 경제 전문가의 말로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버블경제에서 벗어나 심각한 불황에 빠

---

34) “ボキャブラリーが貧困”

저 있는 일본을 이끌어 줄 경제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사상 최저의 저조한 지지율로 당선한 小淵를 빗대어 나타낸 말로 정치권에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경제 전문가가 한 말이다. “어떻게 해도 먹을 수 없다.”<sup>35)</sup> 라는 것이 「冷めたピザ」의 의미로 小淵를 비하한 말이다.

### ■ ブッチホンの 배경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관료나 의원, 대기업의 사장뿐만이 아니라 전자메일을 보낸 일반인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면서 생겨난 말이다. 갑자기 걸려 온 상대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말로 “여보세요, 케이조입니다. 오부치입니다.”<sup>36)</sup>라는 말에 당혹감을 주면서 유행을 불러일으킨다.

그 외, 受賞 大賞語는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에 「真空総理」 「人柄の小淵」 「平成おじさん」 등의 말이 생겨났다.

#### 5.3.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小淵 首相의 재임 시 경제상황과 小淵 首相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의 반응과 저조한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新語·流行語가 생겨났다.

그리고 국내외의 냉소적 반응과 경기침체로 인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小淵 首相은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 보다 적극적

35) “何をしても食べられない。”

36) “もしもし、ケイゾーです、オブチです。”

인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더 많은 접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상 최저의 지지율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게 되었다.

#### 5.4. 小泉純一郎 首相

森喜朗 전 首相의 잦은 실언으로 인해 낮은 지지율이 마스크 등에서 보도 되면서, 森 전 首相이 퇴진하기에 이르렀다.

森喜朗 전 首相의 뒤를 이은 小泉純一郎 首相은 총리로 재임할 당시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정권으로는 佐藤榮作와 吉田茂 다음으로 긴 장기 집권 기간인 1,980일이라는 재임기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中曾根康弘 이후로 사임하지 않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자유민주당 총재가 되었다. 그의 첫 임무인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온전한 한·일 관계 유지에 노력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島根현 의회의 竹島의 날 제정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네티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小泉의 뒤를 이은 安部晋三 내각과 福田康夫 내각 또한 小泉의 노선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등 2000년대 일본정치는 물론 세계 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은 누구나 재생을 기대했으며, 역대 내각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小泉는 “일본을 바꾼다, 정치를 바꾼다, 자민당을 바꾼다.”고 선언하며 등장했다. 이러한 자세가 小泉 정권이 전후 일본의 역대 정권 중에서 佐藤榮作, 吉田茂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장기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小泉 정권이 일관해서 주장해 온 슬로건이 ‘성역(聖域) 없는 구조개혁’이다. 경제, 재정, 행정, 사회, 정치 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은 小泉 정권

의 상징적 과제였으며, 일본 국민도 小泉 首相의 ‘구조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각 지지율도 기본적으로 40%이하를 기록한 적이 없이 전후 일본 정치사상 예외적인 고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었다.

小泉 개혁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정공사 민영화는 07년 10월 일본 우정 주식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그 산하에 우편사업 주식회사, 우편국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정(郵政)은행, 주식회사 간보(簡保) 생명보험을 두고 그룹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그 과정이 종결을 맞이하게 되며 小泉 구조 개혁의 최대의 성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중의원을 해산하여 05년 9월 11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96의석을 획득하여, 小泉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승리를 거두었다. 공명당을 합친 총 의석수가 중의원의 3분의 2이상을 점하는 거대 연립 여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小泉는 首相 재직 중 미증유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역대 首相 중 재임기간이 만료되어 퇴진한 首相 중 한명이다.

#### 5.4.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米百俵, 聖域なき改革,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骨太の方針, ワイドショー内閣, 改革の「痛み」의 배경

小泉 首相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사용한 말인 「米百俵, 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 首相의 슬로건인 「聖域なき改革」 여기에 동반하는 「改革の「痛み」」, 首相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骨太の方針」, 小泉 정권에 붙여진 「ワイドショー内閣」 등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래 내용은 小泉 首相의 소신표명 연설이다.<sup>37)</sup>

私は、“構造改革なくして日本の再生と発展はない”<sup>38)</sup>という信念の下で、経済、財政、行政、社会、政治の分野における構造改革を進めることにより、「新世紀維新」とも言うべき改革を断行したいと思います。

痛みを恐れず、既得権益の壁にひるまず、過去の経験にとらわれず、「恐れず、ひるまず、とらわれず」<sup>39)</sup>の姿勢を貫き、21世紀にふさわしい経済・社会システムを確立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新世紀維新」実現のため、私は、自由民主党、公明党、保守党の確固たる信頼関係を大切に、協力して「聖域なき構造改革」<sup>40)</sup>に取り組む「改革断行内閣」を組織しました。明治初期、厳しい窮乏の中にあつた長岡藩に、救援のための米百俵が届けられました。

「米百俵」<sup>41)</sup>は、当座をしのごために使つたのでは数日でなくなつてしまいます。しかし、当時の指導者は、百俵を

37)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koizumisyo.htm> 참조.

38)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 소신표명의 내용을 그대로 살림.

39)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40) “성역 없는 구조개혁”.

41) 米百俵 정신 : 막부 말 전쟁으로 식량이 떨어졌을 때 인근 영주가 보내온 쌀 100가마를 군량미로 풀지 않고 후손교육이 중요하다며 학교건설에 썼다는 고사로 小泉 총리가 취임 첫해 소신연설 때 교육중시 개혁 추진을 다짐하며 인용해 유명해졌다.

将来の千俵、万俵として生かすため、明日の人づくりのための学校設立資金に使いました。その結果、設立された国漢学校は、後に多くの人材を育て上げることとなったのです。今の痛みを耐えて明日を良くしようという「米百俵の精神」こそ、改革を進めようとする今日の我々に必要ではないでしょうか。新世紀を迎え、日本が希望に満ちあふれた未来を創造できるか否かは、国民一人ひとりの、改革に立ち向かう志と決意にかかっています。私は、この内閣において、「聖域なき構造改革」に取り組みます。

「骨太の方針」<sup>42)</sup>은 01년 6월에 답신한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임하여,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 小泉純一郎가, 「聖域なき構造改革」과 함께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말이다.

#### ■ e-정책의 배경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를 말하며, 전자투표, 전자정부 등의 구상도 있듯이, 정치의 세계에서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

선거 후보자의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01년의千葉현 지사 선거에서는, 응원하는 후보자의 지지, 옹립의 호소 등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 단체가 주목을 받았으며, 01년 6월 창간된 小泉내각 메일 매거진에는 당시 10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쇄도했다.

42) 骨太의 方針: 경제 재정정책 운영의 기본 방침.

## ■ 抵抗勢力의 배경

「抵抗勢力」은 제87·88·89대 총리대신이었던 小泉純一郎가 스스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여러 세력 즉, 자민당 내 의원, 공무원, 우정관련 단체, 야당, 대중매체 등을 통틀어 불렀던 것에서 나온 말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상징어로 사용되었다.

小泉내각이 추진하는 「성역 없는 개혁」<sup>43)</sup>에 저항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 ■ 毒まんじゅう의 배경

정계 은퇴를 결의한 野中広務 전 간사장이 小泉 首相의 지지를 둘러싼 일부 정치가를 비난할 때 사용한 말로, 정계 용어로 「자기 진영을 배신하고 반대 진영에서 지위나 권력을 보증 받고 인사보증을 받는다.」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반대 진영에 들어가기 위한) 뒷돈, 자금」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그러한 뒷거래의 움직임은 바로 폭로되기 때문에, 「당내의 지위나 각료지위 보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sup>44)</sup> 03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있어서 반小泉파로 나섰던 橋本파의 전 간사장 野中広務가 같은 과별의 참의원 간사장 青木幹夫나 회장대리의 村岡兼造를 가리켜 「小泉진영에서 독이든 만두라도 먹은게 아닐까?」<sup>45)</sup>라고 발언한 것에서 流行語가 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 있어서는, 평소의 언동에서 반小泉로 보였던 堀内光男, 河野洋平, 村岡兼造에게 날린 인사수표로 小泉를 지지하는 「독만두 3형

43) 「聖域なき改革」

44) 「党内の地位や閣僚ポストの保証」

(新語探検 <http://www.japanknowledge.com/top/freedisplay>에 의함.)

45) 주28)과 동일. 「小泉陣営から毒まんじゅうでも食わされたのではないか。」

제」<sup>46)</sup>라고도 불렀지만 어쨌든, 공수표였다고 한다.

## ■ サプライズの 배경

英語 surprise는 「놀라게 하다.」의 의미인데, 小泉 首相에 있어서는 단지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차 내각에서 田中真紀子 외상 등 내각을 조직함에 있어서 의외로 여성을 채용했으며, 제2차 小泉 개조내각 다음날 産経신문은 외교·안전보장의 조직이 강화된 내각 인사를 평가했다.

평가 내용은 「지명도나 청신함에 부족함은 있지만, 과별 균형을 무시한 小과별과 無과별에서의 이례적인 기용에 의해서 首相은 『고이즈미류(小泉流)』를 일관했다.」<sup>47)</sup>라고 서술했다. 즉, 이례적인 「서프라이즈(サプライズ)」야 말로 小泉 정치의 본질이라고 일컬어 졌다. 04년 7월 북한의 납치 피해자의 한 사람인 曾我ひとみ씨는 풀려났으나, 남편 젠킨스(Jenkins)씨는 억류된 상태였다. 04년 7월 9일 미국과 범죄자 인도 조건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일가의 재회를 성사시켰다. 이 재회 극 자체가 참의원 선거 투표 직전의 小泉流 서프라이즈(サプライズ)의 연출이었다.

## ■ 小泉劇場의 배경

05년 9월 중의원 선거는 小泉 首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반(造反)」 「자객(刺客)」 「くのいち<sup>48)</sup>후보(くのいち候補)」가 등장, 우정 민영화 문제를

46) 「毒まんじゅう3兄弟」

47) 「知名度や清新さに物足りなさは残るが、派閥均衡を無視した小派閥や無派閥からの異例の起用によって首相は『小泉流』を貫いた。」

木村伝兵衛(2005), 『もっと基礎知識 流行語大賞からキーワード(サプライズ)』 1월호.

48) 닌자(忍者) 밑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어떠한 일을 도모할 시 여성을 이용하는 것을 쿠노이치(くのいち)의 전술이라고 한다. 한자 「女」가 「く」「の」「一」로

둘러싼 단순한 쟁점 등에 의한 마치 「小泉 극장(小泉劇場)」의 형태를 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 小泉가 이겼다. 小泉 首相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여기저기에서 노출시킨 말이다.

당초, 매스컴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로, 小泉 劇場은 반 小泉파가 小泉 首相의 정치수법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뒤에 小泉 지지자에게도 小泉 首相의 정치수법을 긍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텔레비전 朝日の 『ビートたけしのTVタックル』 등에서 매주 방영된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주부, 젊은 층 등의 대중 층까지 침투되었으며, 일종의 사회현상화 되었다. 「小泉純一郎 首相 주연·감독·각본·연출의 小泉 劇場」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 ■ 刺客의 배경

05년 9월 중의원 선거 시 小泉 首相은 우정국 민영화를 반대하는 자민당 후보자 대신 대립 후보자를 내세우는데 대립 후보자를 「자객(刺客)」이라고 불렀다.

#### 5.4.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小泉 首相의 정권 시기는 버블 경제의 붕괴 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국민들의 경제 희생의 바람이 높아지고, 小泉 首相의 경제, 재정, 행정,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개혁추진을 지지하게 되었다. 小泉 首相의 소신 표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소신표명은 流行語처럼 퍼져갔다.

---

분해할 수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정계의 지지파와 반대파의 파벌싸움도 매스컴에서 다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하는 일반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 일 것이다.

## 6. 그 외 首相과 관련된 新語·流行語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

海部俊樹 首相의 「ブッシュホン」(90), 「重大な決意」(91), 竹下登 首相의 「ほめ殺し」(92), 村山富市 首相의 「人にやさしい政治」(94) 福田康夫 首相의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08)에 대한 배경과 首相별 시대상을 살펴보겠다.

### 6.1. 관련 新語·流行語의 배경

#### ◆ 海部俊樹 首相

宇野宗佑가 제 15회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패하고 퇴임을 발표하면서 후임으로 竹下が 지명되었으나, 리크루트 사건으로 근신 중이었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했다. 竹下과였던 海部가 竹下の 지지를 받아 首相이 되었다. 89년 8월 10일부터 90년 2월 28일까지 818일 동안 재임했으며, 취임 당시 리크루트 사건 등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음과 청렴한 이미지로 등장한 海部俊樹에 대한 당

내외의 기대감이 컸다. 경제면에서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으며, 버블경제기로 주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89년 4월부터는 소비세 제도가 도입되어 3%의 소비세를 내었으며, 90년도엔 버블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외교 면에서는 영국 首相과 미국 대통령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海部 首相의 정책 핵심으로 구성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안된 것에 대해 海部 首相은 “중대한 결의로 임한다.”<sup>49)</sup>라고 발언한 것이 중의원의 해산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발언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내각 총사직을 선택했다.

재임 중 竹下파에 눌러 소신껏 정권을 이끌어 가지 못한 채 퇴진하게 되었지만, 잘못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깨끗하고 온화한 인상은 두터운 국민의 지지로 계속 이어졌다. 재임 중 내각 지지율은 높을 때 64%, 퇴임 직전에도 50%를 넘었다.

#### ■ 「“ブッシュ”ホン」(90)

89년 8월에 首相으로 취임한 海部俊樹는 90년 8월에 일어난 걸프전쟁에 대처 할 수 없었던 海部에게 힘을 준 것이 부시 미대통령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일본측의 입장을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지만, 부시 미대통령의 전화로 海部가 희망을 얻는 것에서 「“ブッシュ”ホン」<sup>50)</sup>이라고 말해졌다.

日経의 칼럼에 실렸으며, 일·미관계의 상징적인 위치 관계를 불과 가타카나 5자로 재치 있고 생생하게 묘사한 말이었다. 이후, 각 매스컴이 이

49) “重大な決意で臨む。”

50) 「“부시”폰」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비꼬는 말로서 유행하게 되었다.

## ■ 「重大な決意」(91)

이 말은 리크루트 사건, 共和 사건<sup>51)</sup>등 대형 의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치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폐안되었다. 이것에 항의하는 자민당 개혁파 4명의 의원에 대해서, 10월 1일 海部 首相이 직접 “중대한 결의로 임한다.”<sup>52)</sup>라고 말하면서,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갑자기 발생하는 “海部 퇴진”<sup>53)</sup>의 큰 과장으로 이어져, 首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정치 센스가 없음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 ◆ 竹下登 首相

竹下登 首相은 87년 11월 6일부터 89년 6월 3일까지 576일 재임했다. 자유민주당의 최대 과별이었던 經世會의 창설자로서 정부·여당에 영향력을 자랑했다. 竹下 首相은 고향과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각 지역단체에 자금 1억엔 지원 사업과 소비세 도입 등을 실행했던 정치가이다.

竹下 首相은 리크루트 사건에 의해 총사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昭和 마지막 내각 총리대신이며, 平成 改元때의 내각 총리대신이기도 하다. 또한, 竹下家 12대 당주로 제74대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竹下를 그리워하고 생전 교류가 있었던 관계자의

51) 1991년 7월, 동경 지검특수부는 대기업 「丸紅」와 철골가공 브랜드 「共和」에 의한 철골 자재 가공거래 사건을 적발. 조사과정에서 阿部文男 전 북해도 개발청장관에게 1992년 1월 13일에 9000만엔을 건네준 뇌물수수 사건이 발각되었다. 共和에서 정계로 阿部 외에 5억엔 가까이 흘러들어갔다.

52) 주47)과 동일.

53) “海部降ろし”

호의와 모금에 의해서 7회 기일인 06년 5월 竹下登의 기념관이 세워졌다.

竹下の 재임기간은 경제 호황을 이루었던 시기로 임금이 급상승하였고,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면서 해외여행 붐으로 이어졌다. 젊은 층에서는 평생직장에서 보dana은 직장을 찾는 전직이 유행하게 되었던 시기였다. 竹下는 일·미 무역마찰 현안의 하나였던 쇠고기·오렌지에 대해서, 일·미 간의 협의로 수입자유화에 합의했다.

88년 리크루트 사건이 발각이 되어 정치 불신이 높아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竹下에게도 추궁을 하면서, 竹下の 금고번호라 알려져 있는 비서 青木伊平 간사장이 89년 4월 26일 자살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론의 반발을 받으며, 지지율이 3.9%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퇴진의 압력에 의해 89년 6월 3일 퇴진하게 되었다. 사직 후에도 명목상 竹下는 “정계에서 물러나겠습니다.”<sup>54)</sup>라고 말하면서 내각탄생에 관여하는 등 정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92년 동경 東京 佐川스캔들 사건의 발각과 87년 총재 지명에 관여한 「ほめ殺し」로 알려진 황민당 사건<sup>55)</sup>이 보도되는 등 점점 정계의 불신이 높아져 자민당 지지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 ■ 「ほめ殺し」 (92)

Sunday 毎日の 「佐川스캔들」 기사로 처음 이 말이 등장했으며, 사실의 본질을 파헤쳐 유머가 있으면서 사건을 직시하는 강한 어조의 新語로

54) “玉拾いに徹する。”라고 퇴임후 명목상 竹下가 한 말이다.

55) 황민당 사건은 1987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은 다카마쓰 지방에 본거지를 둔 ‘황민당’이라는 우익 단체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를 ‘돈 잘 버는 다케시타를 총리로 보내자’고 공격한 사건인데, 이때 다케시타 진영이 수십억엔을 황민당측에 건네고 입막음했다는 설도 있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竹下 전 首相에 대한 우익의 공격, “돈을 잘 버는 竹下씨”, “은인을 배신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竹下씨”<sup>56)</sup>등 칭찬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비난하는 방법을 「ほめ殺し」라고 표현했다. 이 기사가 난 이후 모든 매스컴에 이 新語가 흘러넘쳤다.

#### ◆ 村山富市 首相

94년 6월 30일부터 96년 1월 11일까지 561일 재임하였으며,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신당 3당이 추진하는 사회당 위원장의 村山富市를 首相으로서 발족한 연립 정권이였다.

사회당의 首相은 3명째로, 47년 片山哲, 鈴木善幸 이래 처음이다. 「人にやさしい政治」를 외쳤지만, 지도력의 결여로 내각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 자위대 안보정책으로 94년 7월의 임시국회에서 村山 首相은 자위대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정책전환을 표명하였으며, 일미 안보견지도 명확하게 했다. 원폭 피폭자 원호법의 성립과 水俣病 문제<sup>57)</sup>의 해결 등, 전후처리나 약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태까지의 사회당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95년 1월에 발생한 阪神·淡路의 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의 위기관리가 문제시되었고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해 3월의 지하철 사린사건으로 오움진리교 관련사건<sup>58)</sup>에 대한 파괴활동 방지법의 단체 규제적용을 공안 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

같은 해 6월에는, 全日空 857편 공중납치사건 즉, 羽田発 函館行의 全日

56) “お金儲けの上手な竹下さん”, “恩人を裏切る華麗な“芸”を持つ竹下さん”

57) 水俣病은 熊本현의 水俣灣 주변 지역과 新潟현의 阿賀野 강 하류지역에 두 번에 걸쳐서 발생한 유기 수은중독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의 하나이다.

58) 일본의 신흥종교(종교단체). 松本사린 사건과 坂本堤 변호사 일가 살해사건, 지하철 사린사건 등의 테러 행위를 포함 많은 반사회적 활동을 한 종교 단체이다.

空 857편(승원 승객365인)이 공중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 「사린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범인이 오움진리교 교조로 체포·구류된 麻原彰晃의 석방을 정부에 요구했다.

7월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16의석으로 대패했으며, 여당은 개선총수의 과반수를 간신히 확보했기 때문에, 8월 8일에 개조내각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9월에 沖繩현에서 미군에 의한 초등학교 여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현지사의 미군용지 강제 사용절차의 대리서명 거부로 발전했으며, 최종적으로 首相 본인이 서명함에 이르렀으나, 지도력의 부족이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기 불황 역시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었다. 게다가, 전문회사의 불량채권 처리안으로, 재정자금 투입에 의한 손실을 메우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높아졌으며, 96년 1월 예산안심의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총사직을 하고 橋本龍太郎로 이어졌다.

#### ■ 「人にやさしい政治」(94)

村山富市 首相이 취임 시에 한 말로, 급하게 조성된 조각내각으로 취임 연설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동정표를 얻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온화한 정치」<sup>59)</sup>가 정책으로는 너무 변변치 않다는 서민의 반응도 있었다.

---

59) 「人にやさしい政治」

## ◆ 福田康夫 首相

07년 9월 10일에 제168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참석해 정국구상을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후인 9월 12일에 돌연 사임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9월 23일에 安倍晋三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서 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상대 후보 麻生太郎 간사장을 큰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9월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년 만에 중의원과 참의원의 수반 지명이 다르게 나왔지만, 양 의원 협의회에서 타협을 보지 못했으며, 이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福田康夫 자유민주당 총재가 제91대 내각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9월 26일에는 취임식에서 福田총재가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하고, 이전 내각의 주요 각료가 재임하는 형태로 새 내각이 출범하였다. 福田康夫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버지 福田赳夫 총리와 함께 일본 역사상 첫 부자 총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福田康夫 신임 총리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되면,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른바 ‘패수의 진내각’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정치 불신의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으나, 야당은 ‘安倍 대물림 내각’, ‘낡은 자민당 내각’, ‘오래된 이름이 나오는 내각’과 같은 야유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 07년 9월 26일부터 08년 9월 24일까지 365일 동안 재임했으며, “국민의 생활을 위해 새로운 포진(布陣)으로 정책실현을 기하기 바란다.”<sup>60)</sup>라고 퇴진 이유를 밝혔다.

60) “国民生活の為に、新しい布陣で政策実現を期してもらいたい。”

## ■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08)

08년 9월 갑자기 사임하게 된 福田康夫 首相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일처럼 보입니다만”<sup>61)</sup>이라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福田 首相은 발끈하며, “나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는 다릅니다.”<sup>62)</sup>라고 말했다. 평소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만큼, 福田 首相의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다.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나 머그컵도 출시되었다.

### 6.2. 時代相과 사회적 의미

海部俊樹 首相의 「“ブッシュ”ホン」(90), 「重大な決意」(91), 竹下登 首相의 「ほめ殺し」(92), 村山富市 首相의 「人にやさしい政治」(94), 福田康夫 首相의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08) 등에 대한 배경과 首相별 시대상을 살펴본 바, 정권교체와의 관련성이 가장 깊었으며 임기를 모두 마친 首相은 없었다. 90년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해결 될 듯한 일본과 미국의 상징적인 관계를 재치 있게 묘사한 「“ブッシュ”ホン」, 91년에는 대형 의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치 개혁법 폐안에 대한 항의에 대해 「重大な決意で臨む。」라고 말하면서, “海部降ろし”의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정치 센스가 없는 首相으로 취급 받게 된다. 리크루트 사건, 佐川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 竹下登 首相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자민당의 지

61) “国民からは他人事のように見えるが、”

62) “私は自分自身を客観的に見る事ができるんです。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

지울까지 하락하게 되고, 국민들의 정계 불신이 더욱 깊어짐을 시사해 준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힘없는 村山富市 首相의 「人にやさしい政治」는 지도력 결여로 지지율 역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치 불신이 계속 이어진 상태로 福田康夫 首相은 정치 불신의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정계에서는 야유의 말들이 나왔으며, 결국 퇴진으로 이어졌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급속하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新語·流行語를 통해 현대 일본의 이슈화된 일들과 경제, 정치, 사회를 이해하고, 변해가는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통해 그 시대상(時代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되었다.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크게 경제,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누어 시대상을 살펴보았다. 新語·流行語는 경제 호황기 때의 안정감과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한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어 생겨나고 있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저조한 지지율과 최고의 지지율이라는 상반되는 국민들의 심리와 사회현상이 반영되어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新語·流行語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제, 정치 분야에서 국민들의 심리와 사회현상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보면, 新語·流行語의 발생요인 중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분야는 드라마나 영화, 도서 출판물에서 나온 말, 유명 연예인이 한 말이 新語·流行語로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범국민 스포츠인 야구에 관련된 新語·流行語가 많았다.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생각하면 新語·流行語 발생요인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론 1절에서는 新語·流行語의 개념과 발생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新語·流行語의 개념을 米川明彦와 같이 구분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고찰 하는 바, 新語와 流行語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新語·流行語로 쓰기로 한다.

2절, 3절에서는 84년부터 09년까지의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경제,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누어 大賞語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총 303어 중 경제 분야에서는 22%, 정치 분야에서는 16%, 사회 분야에서는 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제 분야의 新語·流行語를 살펴본 바, 일본 경제의 호황으로 모든 분야에서 풍족함과 자신감이 만들어 낸 新語·流行語와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전 열도의 불황을 나타내는 新語·流行語가 생겨났다.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IT산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 분야는 전반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首相이 한 말과 首相의 행동에 주목되면서 新語·流行語가 많이 생겨났으며, 정계와 관련된 부정 부패가 표적이 되어 있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스포츠 관련 용어가 많았으며, 매스컴을 통해 많은 新語·流行語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풍속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문제를 적확하게 짚어내고 있었으며, 오락성에 치우친 경우도 있으나 사회를 풍자하고 일반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정확시켜 주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4절과 5절, 6절에서는 首相과 관련된 大賞語를 통해 발생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각 시대마다 공통되는 요소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정계 유착과 뇌물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치윤리 문제가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계비리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정계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首相의 퇴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태를 읽을 수 있었다.

84년부터 09년까지의 首相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퇴임한 首相인 小淵 首相과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한 小泉 首相을 제외 하고는 거의가 임기

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잦은 정권교체에는 정계비리 사건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호황기를 거치고, 90년대의 불황을 맞이해 잃어버린 10년을 지내 온 국민들의 바람은 경제회생과 개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00년대에는 이러한 바람이 개혁정치로 이어지게 되었고 압도적인 지지로 小泉가 당선되어 많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그 결과는 격차사회라는 사회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

정치 관련 新語·流行語는 小淵 首相과 小泉 首相 정권시기에 가장 많은 말들이 생겨났다. 불경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首相으로 향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답답함은 首相을 비하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新語·流行語를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新語·流行語는 각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에 따른 현대사회의 발전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직업, 최신 기기를 매일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문화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성되는 新語·流行語는 개개인에 따라 표현과 인식 차이도 크다.

新語·流行語는 일반화되지 않고 소멸되는 언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널리 사용되는 언어, 널리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용되는 언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분석 면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찾기란 힘든 면도 있었다. 한·일을 막론하고 양국에서 발표된 新語·流行語의 관계된 논문이나 문헌은 대체로 신세대 언어 즉, 젊은이 언어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新語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것은 新語·流行語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연구 분야의 방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러한 경향은 한국

에서 더 뚜렷하여 한국측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에 그치고 있었다. 그 만큼 新語·流行語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며, 향후의 新語·流行語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新語·流行語의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첫째, 新語·流行語로 선정된 말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고 유통되었는가? 둘째, 新語·流行語의 사용 현황 조사, 사용하는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셋째, 한일의 新語·流行語 비교 분석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등 세가지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의선(2006), 「現代 日本語의 「젊은이 언어」에 관한 考察-現代用語의 基礎知識(2001년~2005년)의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희(2003), 「헤이세이 1년부터 헤이세이 11년까지의 신어와 유행어를 통해 본 시대의 양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주영(2007), 「일본의 현대용어 사전을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흐름비교-현대 사회와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훈(2009), 「고이즈미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개혁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연구』 제41호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
- 이주향(2003), 「現代 日本語 新語에 대한 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주현(2002), 「現代日本語의 新語考察-類型的分類와 造語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현(2009), 「「KY」어를 통해서 본 일본 신조어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재령(2000), 「현대일본어의 신조어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제6호 광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현정(2007), 「현대 일본어의 신어에 대한 일고찰-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영철·송민수·황혜선(2008), 「신어의 어종에 대한 일고찰」 『일본언어문화』 제12호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 임진성(2005), 「日本語에 나타난 新語 考察」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일본어저널 편집부(2009), 『月刊 日本語ジャーナル』 1월호 다락원
- 진창수(2005), 「2005년 일본 정세」 『정세와 정책』 1월호 세종연구소
- \_\_\_\_\_ (2006), 「2006년 일본 정세」 『정세와 정책』 1월호 세종연구소
- 전현숙(2000), 「若者言葉の韓日比較-形態と社会的機能の考察を中心に」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종민(2003), 「日本若者に 대한 고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飯野公一・恩村油香子・杉多洋・森吉直子 (2003), 『新世代の言語学』くろしお出版
- NHK放送文化研究所 (2004),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第六版]』日本放送出版協会
- \_\_\_\_\_ (2010),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 [第七版]』日本放送出版協会
- 大塚明子(2003), 『新語死語流行語—こんな言葉を生きてきた』集英社
- 金田一 春彦 外 編 (1988), 『日本語百科大事典』大修館書店
- 木村伝兵衛(2005), 『月刊 基礎知識 -もっと基礎知識』1月号 自由国民社
- 北原保雄 編著 (2009), 『みんなで国語辞典2 あふれる新語』大修館書店
- 新村出 編(1998), 『広辞苑 第五版』岩波書店
- 鈴木英夫(2003), 『日本大百科全書』小学館
- 自由国民社編集部(2010), 『現代用語の基礎知識—1991~2010年分特別パック』自由国民社
- 窪蘭晴夫(2002), 『もっと知りたい日本語—新語はこうして作られる』岩波書店
- 高見沢孟(2004),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1』ask
- 真田信治・渋谷勝己・陣内正敬・杉戸清樹(1992), 『社会言語学』桜楓社
- 真田信治(2006), 『社会言語学の展望』くろしお出版
- 御厨貴(2003), 『歴代首相物語』株式会社新書館
- 米川明彦(1989), 『新語と流行語』南雲堂
- \_\_\_\_\_ (1994), 「若者語の世界—若者語とは」『日本語学』12月号 明治書院

#### 참고사이트

-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koizumisysinn>
- <http://chiebukuro.yahoo.co.jp/>
- <http://www.gengoya.com/>
- <http://ja.wikipedia.org/wiki>
- <http://kioku.xrea.jp/>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www.nikkeibp.co.jp/style/biz/abc/newword/>
- 新語・流行語 大賞 [www.singo.jiyu.co.jp/index.html](http://www.singo.jiyu.co.jp/index.html)

<http://100.yahoo.co.jp/detail/>

<http://www2.ttcn.ne.jp/honkawa/4400.html>

<http://www.japanknowledge.com/top/freedisplay>



## 【부록】

### 1回 [1984年]

- ◆**オシンドローム**：超人気番組だったNHKの連続テレビ小説『おしん』に因んだ新語。主人公「おしん」の姿は、戦後を働き抜き、豊かさを手に入れた日本人の心情に“良質の日本人”像として共感の嵐を巻き起こした。
- ◆**鈴虫発言**：1983年、ロッキード事件の田中角栄元首相を揶揄したのが中曽根首相。「倫理、リンリ」とまるで鈴虫が鳴いているようだと言った。
- ◆**スキゾ・パラノ**：ニューアカデミズムの旗手といわれた浅田が、人間の特質を、スキゾ人間とパラノ人間とに分類した。スキゾ人間とはいろいろなことに興味をもち、ひとつのことにこだわらない人。パラノ人間はひとつのことに熱中して、ほかのことは全く考えない人。
- ◆**特殊浴場**：今でいう「ソープランド」には長いこと「トルコ風呂」という俗称があった。
- ◆**まるきん まるび**：渡辺和博は著書『金魂巻』で、現代の代表的職業31種に属する人々のライフスタイル、服装、行動などを、金持ちと貧乏人の両極端に分けて解説した。それを、○金（まるきん）、○貧（まるび）とネーミングしたところが秀逸。
- ◆**くれない族**：1984年に放送されたTBSテレビの金曜ドラマ「くれない族の反乱」から生まれた言葉。
- ◆**疑惑**：「ロサンゼルスでM氏が妻を保険金殺人」という大胆な仮説を展開した『週刊文春』のキャンペーン企画『疑惑の銃弾』。この後、メディアは、事件を洪水のように報道し続けた。「疑惑」の文字は氾濫し、一大流行語となった。
- ◆**千円パック**：この年、怪人21面相が菓子に青酸ソーダを混入し、グリコ・森永など菓子メーカーを脅迫する事件が起きた。この脅迫に対抗するために森永製菓が考え出した、安全のための菓子パック。1200円程度の内容の菓子を完全に包装し、1000円で売った。
- ◆**「す・ご・い・で・す・ネッ」**：人気番組のフジテレビ「笑っていいとも」で、所が流行らしたギャグ。大したことでもないことで大袈裟に人を誉めるときに用いるが、若者が“場”を盛り上げるために好んで使うようになり流行した。
- ◆**「教官！」**：TBSテレビ「スチュワーデス物語」で、主人公・松本千秋（堀）が連発するセリフ。

## 2回〔1985年〕

- ◆分衆：日本人の価値感が多様化・個性化・分散化してきたとし、従来の均質的な“大衆”ではなく“分衆”が生まれたとした。
- ◆パフォーマンス：この年、“お堅い”日本社会党が新宣言草案の中に「愛と知の力のパフォーマンス」という表現を用い、一挙に国民の間にこの言葉が広がった。
- ◆NTT：日本電信電話公社は民営化され、NTT（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として再スタートした。NTTという名は新社名発表からわずか数カ月、驚異的な早さで認知された。
- ◆キャバクラ：「キャバレー」と「クラブ」の合成語。
- ◆言語戦略：『武器としてのことば―茶の間の国際情報学』（新潮選書）で提唱された。
- ◆ネバカ：「オールナイターズ」「おニャン子クラブ」など女子大生・女子高校生ブームが真っ盛りの世相を痛烈に批判した新語。
- ◆「イッキ！イッキ！」：若者たちが酒を飲むときに周囲の者がはやしたてるかけ声。
- ◆トラキチ：21年ぶりの優勝を遂げた阪神をサポートした熱狂的な応援団のこと。
- ◆角抜き：目白の闇将軍と言われ、キングメーカーとして政界支配を続けた田中角栄が倒れ、急速に政治的影響力は失われた。この状況を的確に伝える言葉として、社会的に広く認知された。
- ◆「私はコレで会社をやめました」：禁煙「バイポ」のCMから生まれた流行語。
- ◆「投げたらアカン」：青少年の非行防止キャンペーンとして、公共広告機構が流したテレビCMから生まれた流行語。
- ◆100ドルショッピング：凄まじい経済発展、大幅な輸出超過、世界経済一人勝ちの日本は、多くの国との間に深刻な経済摩擦が生じるようになった中曾根首相は、国民に舶来品を1人100ドル買って欲しいと訴えかけた。その姿に国民は半ばあきれ、皮肉を込めて流行語とした。
- ◆「愛しているからチライのよ」：人妻であり韓国人であるソーブランド嬢との愛を描いた『片翼だけの天使』は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
- ◆テレビ番組「ひょうきん族」から発する各種流行語：「ひょうきん族」に代表されるフジテレビのバラエティー番組は、テレビの在り方を変えたと言われる。

### 3回〔1986年〕

- ◆**究極**：新語でもない「究極」が選ばれた理由は、あらゆる料理に究極を求める、いわゆる“グルメブーム”の火付け役となった言葉である。
- ◆**激辛**：グルメ時代の幕開けを特徴づける新語。辛口せんべいという意表をついた商品を発売した鈴木は、一躍激辛のスターとなった。
- ◆**ファミコン**：テレビゲーム業界に誕生した革命的な新商品「ファミリー・コンピュータ」、通称「ファミコン」は、空前の大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
- ◆**川の手**：明治以降、地盤沈下が進んだ“下町”が、再興の願いを込めて“山の手”に対して「川の手」とネーミング。
- ◆**家庭内離婚**：愛情は冷めてしまったのに、子供、老親、経済的自立の問題などで、離婚することができない夫婦の形態を的確に、かつ鋭く表現した。
- ◆**アークヒルズ**：東京改造計画、赤坂・六本木地区の開発事業。この中心となったのが、最先端のインテリジェントビルであるアークヒルズで、土地の高層利用、24時間都市といったあらゆる面でのモデルケースとして、東京新名所となった。
- ◆**新人類**：旧人類からすると、新人類は自分勝手、無感覚、シニカルというような、マイナスイメージが強かった。ところが、物おじしない、クヨクヨしない、明るい部分だけを見るというような新人類らしいパーソナリティで大活躍したのが、ライオンズの3選手。これにより、新人類のイメージは一新された。
- ◆**知的水準**：中曾根首相が自民党内の会合で、外国に対し「知的水準が低い」との発言をした。
- ◆**「亭主元気で留守がいい」**：テレビCMから生まれたフレーズ。“亭主の沽券”を徹底的に笑いのめし、夫が留守で元気はつらつな妻がこのフレーズを叫ぶ。
- ◆**おニャン子**：フジテレビで放映された「おニャン子クラブ」、テレビに出たがり屋、目立ちたがり屋の女子高生を「おニャン子」と呼ぶ。
- ◆**「プツン」**：コメディアン・片岡鶴太郎が飛ばしたギャグ。人に責められたり、都合の悪いことがあると、「プツン」と言って、その場をごまかしてしまう。
- ◆**「やるしかない」**：社会党は、新委員長に土井を選んだ。委員長に就任した土井は、悲壮な覚悟を込めて「やるしかない」との第1声を放った。この名セリフは大いに受け、流行語になった。
- ◆**150円台**：政府の円高容認政策により、米ドルに対する円レートは一挙に200円の大台を割った。近い将来、150円までなるとの見通しは日本社会にショックを

与え、流行語ともなった。

◆「バクハツだ！」：独特なカリスマと存在感を持つ岡本が「芸術はバクハツだ」と叫ぶと、奇妙なりアリティがある。

◆地揚げ・底地買い：狂乱の土地投機ブームが本格化し、日本全国で悪質な土地買い、住民追い出し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女優・馬渕晴子は、強引な追い出しを図る不動産業者を告発し、庶民の側からの「地揚げ・底地買い」反撃のシンボルとなった。

#### 4回 [1987年]

◆マルサ：国税査察官は、査察の査を〇で囲った“マルサ”と通称される。映画「マルサの女」は女性査察官を主人公にして大ヒットした。

◆JR：7つのJRに分割、民営鉄道会社として再スタートを切った。

◆第二電電：電電公社が民営のNTTとして再生され、開放された電気通信事業には続々と新会社が参入した。その中で、ひときわ異色のネーミングで目をひいたのは「第二電電」。

◆サラダ記念日：短歌界の超大型新人・俵万智のデビュー歌集『サラダ記念日』は、短歌集としては異例の260万部という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

◆朝シャン(モーニング・シャンプー)：「朝シャン」とは、資生堂のCM“朝のシャンプー”というフレーズが高校生の間で簡略化されたもの。

◆ノリサメ：ノッているかと思うとサメている、まったく新しいタイプの人物群を「ノリサメ族」と言う。

◆懲りない〇〇：安部譲二の『塀の中の懲りない面々』は、刑務所という特異なモチーフと登場するユニークな人物群により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

◆「なんぎやなあ」：この年、阪神タイガースは開幕から負け続け、呆れるばかりの負けっぷりをみせつけた。地元大阪のテレビ関係者である受賞者が、この阪神の姿を見て言ったセリフが「なんぎやなあ」。

◆ゴクミ：後藤久美子を縮めてゴクミ。元祖“国民的美少女”と言われたゴクミ人気が大フィーバー。

◆マンガ日本経済入門：言葉ではなく、表現方法が流行になったという意味での受賞である。受賞の『マンガ・日本経済入門』は、日本経済の内外状況をビビッドな迫力で描き、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

- ◆ワンフィンガー ツーフインガー：村松を使った、サントリーウイスキーのテレビCMから生まれた。シングル、ダブルと言わずに、「ワンフィンガー、ツーフインガー」とキザに表現したのが受けた。
- ◆サンキューセット：マクドナルドは520円のハンバーガーセットを390円で売り出し、39（サンキュー）セットとネーミング。
- ◆“国際”国家：5年に及ぶ長期政権を終えた中曽根首相が、多くの機会に発言、表現したのが「“国際”国家」という言葉であった。
- ◆鉄人：プロ野球の連続出場試合新記録を達成した衣笠選手に送られた称号。「鉄人」という言葉は、“料理の鉄人”というようなさまざまな使われ方をされ流行語となる。

#### 5回 [1988年]

- ◆ペレストロイカ：ソビエト共産党のゴルバチョフ書記長が打ち上げたソ連の改革政策（ペレストロイカ）は、世界中から好感をもって迎えられ、その成否は注目を集めた。
- ◆ハナモク：週休2日制が定着し、金曜日の夜を「花金」と呼び始めたのは数年前のことだったのに、早くも木曜日が遊ぶには最適な日と大騒ぎ。
- ◆トマト銀行：法律改正に伴い、相互銀行などが“銀行”として統一され、社名変更をすることになった。新社名として「トマト銀行」。堅いイメージの銀行に、トマトを冠する発想の柔軟さが話題となった。
- ◆遠赤（効果）：健康ブームに乗ったマスコミの報道をきっかけに、この年にわかに「遠赤」がもてはやされた。
- ◆カイワレ族：親の立場からの村崎の発信に、メディアはこぞって管理社会の中でしか生きることが許されない中・高校生を「カイワレ族」と呼んだ。
- ◆「今宵はここまで（いたしとうござりまする）」：会社の会議、学生のサークル、宴会、はては教室でも、時間の終了を婉曲に告げる時に好んで使われた。発信元はNHK大河ドラマ「武田信玄」。
- ◆ドライ戦争：ビールメーカーによる「ドライビール」の宣伝だが、マスコミはこれを「ドライ戦争」と書き立てた。
- ◆シーマ（現象）：日産が新発売した高級車「シーマ」は、爆発的な人気を博した。高級品志向の商品が数多く発売されたこの年、日本人の意識の変化を物語る言

葉として「シーマ（現象）」の語が多く使われた。

◆**アグネス論争**：子供を連れて仕事場に行くアグネス・チャンに対し、作家・林真理子が批判。これにアグネスが反論し、双方の応援団を混じえての大論争に発展した。

◆**5時から（男）**：栄養剤「グロンサン」のコマシャルから生まれた。管理社会への抵抗という解説もあったが、身近に必ずいる“仕事よりも遊び男（女）”が彷彿され、彼らを「5時から男」と揶揄した。

◆**しょうゆ顔・ソース顔**：若い女性の間で、男性の顔を分類する遊びが大流行。そんな中で、もっともポピュラーで市民権を得たのが「しょうゆ顔」「ソース顔」の分類。切れ長の一重まぶたの和風の顔立ちが「しょうゆ顔」、彫りが深いモデル顔が「ソース顔」で、それぞれの代表として“少年隊”の東山と錦織が選ばれた。

◆**一村一品／ヒューマン・ブランド**：大分県が独自の地域活性化事業「一村一品」運動を始めて10年。この年には全国自治体の70%までが同様の事業を起こすまでになった。さらに、生産者の顔が見える「ヒューマンブランド」作戦を展開するなど、ユニークな活動は高い評価を得た。

◆**「ユンケルンバ ガンバルンバ」**：栄養剤「ユンケル黄帝液」のテレビCMで森田（タモリ）が発するセリフ。

◆**「ふつうは“汚職”と申します」**：この年、戦後最大の疑獄事件と言われるリクルート事件が起きた。未公開株で資金提供を受けた政・官界のお偉方は、口裏を合わせたように「自分は知らない」「秘書が」「妻が」「息子が」「弟が」と責任を転嫁した。そんなとき、ズバツと問題の核心をえぐったのが産経新聞のこの見出し。

## 第6回 [1989年]

◆**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欧米ではすでに社会問題化していた「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だが、日本では“西船橋駅転落事件”の判決が出たこの年、一気にスポットライトを浴びた。

◆**H a n a k o**：女性雑誌『H a n a k o』のコンセプトや、愛読者のこと。

◆**D O D A / デューダ（する）**：転職情報誌『D O D A（デューダ）』が発行元。転職のことを「デューダする」という。

◆**まじめ×ゆかい**：この年の就職戦線は、空前の“売り手市場”で、どんな企業でも誰でも入れる、といわれるほどであった。そんな状況に危機感をもったのが、折り紙付き

の硬派産業・川崎製鉄。スローガン「まじめ×ゆかい 川鉄」をひっさげて大学生募集に奔走し、社会的にも大きな反響を呼んだ。

◆濡れ落葉：仕事、仕事で疲れきった亭主。反対に体力、気力、バイタリティに満ちあふれた女房族。この夫婦関係をズバリえぐり取ったのがこの言葉。

◆オバタリアン／オバタリアン（旋風）：ホラー映画の『バタリアン』とオバサンを合成したマンガ「オバタリアン」（堀田作）とは“ずうずしく、羞恥心がなく、自分勝手”なキャラクターなのだが、そう名指しされた「オバタリアン」に受けるという不思議な現象を見せた。

◆ケジメ：政・官界に対する庶民の不信感は頂点に達し、政治家の“倫理”は“死語”と化した。倫理に代わって登場したのが「ケジメ」。

◆「24時間タカエマスク」：栄養剤「リゲイン」のテレビCMから生まれた言葉。猛烈サラリーマン（時任）がリゲインを飲んで、世界を舞台に働き闘うストーリーで、時代の空気を見事に反映している。

◆イカ天：「イカ天」とは「平成名物TV イカすバンド天国」の略語で、三宅は司会者。

◆「こんなん出ましたけど〜」：テレビなどで活躍した占い師の泉が、占いの結果を発表する時に言うセリフ。どことなく、インチキくさく、そしてユーモラスな物言いが受け、流行語になった。

◆『壁』開放：“ベルリンの壁”が打ち壊された。今世紀で特筆される歴史的出来事である。

◆平成：この年の1月8日、年号は「昭和」から「平成」に替わった。

◆NOと言える日本：石原慎太郎と盛田昭夫の共著『「NO」と言える日本』が出版され、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NOと言える〇〇」が使われ、流行語となった。

## 第7回 [1990年]

◆ファジィ：「ファジィ」とは“あいまい”という意味の言葉で、カリフォルニア大学のザデー教授が開発した「ファジィ工学」で一躍有名になった。

◆“ブッシュ”ホン：1989（平成1）年8月に首相に就任した海部俊樹は、90年8月に勃発した湾岸危機では対処不能に陥った。その海部を支えたのが、ブッシュ米大統領からの電話。ブッシュからの電話があるとにわかに元気づくことから「『ブッシュ』ホン」といわれた。日米首脳の象徴的な位置関係。各メディアがこの言葉を使いだ

し、皮肉な流行語となった。

◆**オヤジギャル**：漫画「スイート・スポット」の登場人物。年若いけれど、やることは“オヤジ”そのもの、そんな女性を「オヤジギャル」と呼び、当の女性たちに大受けした。

◆**アッシーくん**：深夜、帰宅しようとする女性が電話を一本。。電話一本ですぐに飛んで来て、“足代わり”を務めることからこの名がついた。

◆**ちびまる子ちゃん（現象）**：漫画「ちびまる子ちゃん」が米紙ワシントン・ポストに“日本人の心とマーケットをかっさらった漫画”として紹介された。

◆**バブル経済**：土地や株の相場が揺れ動くようになった1990年、うたかたのように“泡”は消えるのではないかと多くの庶民が感じ始め、「バブル経済」の文字は頻度を増した。

◆**一番搾り**：アサヒ“スーパードライ”の大ヒットに対抗するため、ビール業界の王者キリンが発売した新ビールの名称。

◆**パスポートサイズ**：ソニーが新発売したビデオ用ハンディカメラの名称。

◆**愛される理由**：歌手・郷ひろみと結婚した二谷が書いた初のエッセイ本のタイトル。「このレストランが愛される理由」という使い方で、若い人の間で流行語となった。

◆**昭和生まれの明治男**：野球に賭けた鬼気迫る執念と頑固さを、陰で支えた淑子婦人は「昭和生まれの明治男」と表現した。

◆**「気象観測史上（はじめての…）」**：この年は春、夏、秋、冬と、異常気象の連続であった。そのため気象予報では「気象観測史上初めての」とか「測候所開設以来の」という枕言葉が多用された。

◆**スペシャルゲスト**：この年8月、イラク軍はクウェートに進攻。これに伴い、イラク国内の外国人は拘束されたのだが、フセイン大統領はこれを「スペシャルゲスト」と強弁した。国内でも、むりやり人に何かを要求することを「スペシャルゲスト」と言う冗談がはやった。

## 第8回 [1991年]

◆**「…じゃあ～りませんか」**：とぼけた表現と演技力、抜群の間合いで、この年最大の流行語となった。

◆**火砕流**：この年、雲仙岳が200年の沈黙を破り大噴火を起こした。自然の持

つ底知れぬ怖さを、火山列島・日本でも62年ぶりという大火砕流が見せつけた。

◆「ひとめぼれ」：ブランド米「ササニシキ」の後継米として登場したのが「ひとめぼれ」。

◆八月革命：この年の8月、モスクワ放送からクーデターの第一報が世界中に発信された。これを知ったメディアの一部は、「二月革命」をもじって、これを「八月革命」と命名した。

◆川崎劇場：熱狂的な応援団と名物監督・金田正一のパフォーマンスは、本拠地・川崎球場の名から「川崎劇場」と称されていた。

◆地球にやさしい：エコロジー問題が将来の最重要課題になるとの認識が社会的に深まるなか、テーマ「地球にやさしい」は、抜群のネーミングでたちまち流行語となった。

◆紺ブレ：バブル期の最後に流行ったのがこれ、「紺のブレザー」＝「紺ブレ」である。

◆若貴：この年、一番の明るい話題が「若貴」兄弟の大活躍。相撲ファンのみならず、日ごろは相撲に興味がないヤング層まで大フィーバー。

◆重大な決意：リクルート事件、共和事件など大型疑獄事件の続発を受け「政治改革法」が上程されたが廃案となった。これに抗議する自民党改革派若手4人衆に対して、10月1日夜半、海部首相の口からこのセリフが飛び出し、政界を激震させた。

◆損失補填：株価下落により損失を被った大口の顧客（大企業など）に対し、多くの証券会社はこっそり「損失補填」を行っていた。

◆「僕は死にましゅ〜ん」：ファッションブルな美男美女が、絵空事的生活実感の中で“恋愛遊戯”を繰り返す“トレンドドラマ”が当時人気であった。

◆「ダダーン ボヨヨン ボヨヨン」：ピップフジモトのテレビCMから生まれた。

◆ダンス甲子園：日本テレビの「天才たけしの元気が出るテレビ!!」の番組内企画名。

◆チャネリング：霊界との交信ができるという「チャネリング宗教」が若者の間で流行した。

◆雅美さん、雅子さん、たぬき顔：加山一家からいじめられた心優しき女性であったのが、いつしか男を手玉にとる希代の悪女になっていった。それにつれ雅美から、雅子へ名前も変わり、事実は何が何だか分からない、という有り様。梨元は取材の中心に

おり、雅美を“嘘つき”の「たぬき顔」と揶揄して告訴された。

## 第9回 [1992年]

◆きんさん・ぎんさん 「うれしいような、かなしいような」 「はだかのおつきあい」

：百歳になる双子の姉妹「きんさん、ぎんさん」。

☆語録賞＝「うれしいような、かなしいような」☆語録賞＝「はだかのおつきあい」

「はだかのおつきあい」は、貴花田と宮沢りえ婚約の感想。

◆ほめ殺し：竹下元首相に対する右翼の攻撃、「お金儲けの上手な竹下さん」

「恩人を裏切る華麗な“芸”を持つ竹下さん」など、“誉めて”いるようで非難する手口を「ほめ殺し」と表現した。すべてのメディアにこの新語が溢れた。

◆カード破産：バブル経済崩壊が実感となってきた1992年らしい新語。“気軽にクレジット”のうたい文句に乗せられて、気が付いたら家計は火の車、後は自己破産しかないという人が急増した。

◆もつ鍋：素朴で荒々しい料理「もつ鍋」が全国的にブームとなった。

◆複合不況：バブル崩壊後の日本経済がおかれている状態を解析した経済書『複合不況』。

◆9K： “きつい” “きたない” “きけん” の職場を3Kと言うが、看護婦の仕事は9Kだと訴えたのが「ナース・ウェーブ行動」（江尻代表）。看護婦のおかれている実態や、厚生事業の貧困さを「9K」という一語で見事に表現した。

◆謝長悔長：バブル経済崩壊が明確になった1992年は、放漫経営のつけが一斉に噴き出し、あちこちで経営トップが頭を下げる光景が日常化した。この情景をパロディー化したのが「謝長悔長」。

◆冬彦さん：TBSテレビ『ずっとあなたが好きだった』は子離れしない母（野際）と、子（佐野）の無気味な関係を描いて大評判となった。

◆「ねェ、チューして」：話題になった、コーセー化粧品のテレビCMから生まれた流行語。

◆上申書：“東京佐川急便事件”で不法献金を追及されていた金丸信（自民党副総裁を辞任）が、検察からの出頭要請に対し「上申書」で対抗して拒否した。金丸が許されるならばオレもやると、三重県の建設会社社長の小林は、建築基準法違反出頭命令に対抗し「上申書」を提出した。法の前では平等を身をもって実践したこの“快挙”に庶民は喝采を送った。

- ◆**宇宙授業**：日本人初の本格的宇宙飛行士の毛利が、最初に地球に送ったメッセージは北海道の黒川小学校であった。平易に宇宙を語る毛利と、夢見心地で素朴な質問をする小学生たち。この光景は視聴者に大きな感動を与え、マスコミはこれを「宇宙授業」と呼んだ。
- ◆**歌手の小金沢クン**：ノドぐすりのCMから生まれた流行語。
- ◆**ツインピークス**：アメリカの人気ドラマ「ツインピークス」、日本でも大ブームになった。
- ◆**「Time for change」**：クリントン次期米国大統領の発言。

#### 第10回 [1993年]

- ◆**Jリーグ**：あっという間に、日本国中をサッカーファンだらけにしたJリーグ旋風。
- ◆**サポーター**：ドーハまで出かけ、選手たちとともに「12人目のプレイヤー」として頑張ったのが「サポーター」たちだ。
- ◆**新・○○**：1993年は“新党”ブームとなり、「“新”生党」「“新”党さきがけ」「日本“新”党」などが続々と誕生。
- ◆**FA（フリーエージェント）**：一球団に一定期間以上在籍すれば、他球団への移籍の自由が認められるのがプロ野球の新制度「フリーエージェント」。
- ◆**規制緩和**：運輸省の行政指導に一人で立ち向かい、12年間の苦闘の末「タクシー値下げ」を果たした京都・MKタクシー（青木会長）は「規制緩和」の“実体”を広く世に知らせた功績があった。
- ◆**清貧**：政治家、官僚、財界人だけでなく、市井の庶民まで、拝金、物欲の塊と化している風潮に対して、敢然と一矢を報いたのが中野の著書『清貧の思想』。金満日本へのアンチテーゼとしてだけでなく、清貧という心地よさげな言葉の持つ力が大きい。
- ◆**天の声**：1993年は“談合”によるゼネコン汚職が問題化した。自治体の公共事業を、業者間の談合で入札企業を決めていたというもので、この際、地方首長の意向を「天の声」と呼称していたという。本来の用法と異なり、隠語として「天の声」が多発されていたとなると、もはや立派な新語と解釈するしかないとした。
- ◆**親分**：現代では失われてしまった「親分」という言葉を、見事に復活させたのが大沢である。
- ◆**「聞いてないよォ」**：テレビ番組で、台本には無いことをやらされそうになったダチョ

ウ倶楽部、「聞いてないよォ」の悲鳴はギャクとなって大当たり。

◆**お立ち台**：ディスコブームは燎原の炎のように全国に拡散した。スタイル、ファッション、ダンスに自信のあるギャルは、フロアの一段と高くなった「お立ち台」に上がり、自分をアピールする。

◆**2500円スーツ**：バブル崩壊後の商品市場では、“価格破壊”が最大のセールスポイントになった。その象徴的な出来事が、「洋服の青山」が行った「2500円スーツ」の売り出しで、デパート業界は真っ青になった。

◆**ウゴウゴ・ルーガ**：フジテレビ系で放映の幼児向け教育番組のタイトル。

◆**たま・ひよ（族）**：福武書店が発行する育児誌『たまごクラブ』『ひよこクラブ』は、奇抜なタイトルと内容が若いママの間で大ウケし、「たま・ひよ」なる造語まで生み出した。

◆**「悪妻は夫をのばす」**：落合選手の夫人である信子を書いたエッセー本のタイトル。猛女である信子と、甘えん坊で何でも信子の言いなりになる落合選手。落合選手の実績の前には、ただ言葉もなく、「悪妻は夫をのばす」の語は妙に説得力をもってしまった。

#### 第11回 [1994年]

◆**「すったもんだがありました」**：タカラ「カンチューハイ」のテレビCMで宮沢が言うセリフ。本格的な景気後退が続く世相から、さまざまな「すったもんだ」があった一年であったが、視聴者は宮沢の私生活を連想した。

◆**イチロー（効果）**：1994年、プロ野球に新星が華々しく登場した。イチローこと鈴木一郎。この年、スポーツメディアはイチローの安打数を報道し続け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イチローの活躍により波及効果が生まれ、これを「イチロー効果」と言った。

◆**「同情するならカネをくれ」**：日本テレビ「家なき子」で、主役の少女（安達）が言うセリフ。建前で生きる世間に対し、少女が放ったこの一言は強烈なインパクトがあり、話題騒然の流行語となった。

◆**価格破壊**：円高が続きながら、なぜか物価は下がらない。庶民の不満に応え、「価格破壊」に乗り出したのがダイエーグループ（中内会長）。複雑な商品流通システムにメスが入り、オープン価格制度が導入されるなど「価格破壊」は日常語になった。

- ◆**ヤンママ** : 茶髪に派手なファッションの若い母親が急増。ヤングでヤンキーなところから、「ヤンママ」と呼ばれた。
- ◆**新・新党** : 前年からの「新党」ブームの“真打ち”として、「新・新党」の発足が打ち上げられた。
- ◆**大往生** : “死”という取っ付きにくいテーマを、明るく、伸びやかに表現して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のが『大往生』（永六輔著）。
- ◆**人にやさしい政治** : 村山富市が首相就任時に言ったセリフ。
- ◆**契約スチュワーデス** : 経営悪化が進む航空各社は、正規のスチュワーデスの代わりに「契約スチュワーデス」を採用することを決定。
- ◆**関空（かんくう）** : 日本初の24時間利用可能の海上国際空港「関西国際空港」がオープンした。略称「関空（かんくう）」は、いかにも関西らしいネーミングと好評で、瞬間に呼び名が定着した。
- ◆**ゴーマニズム** : “独断と偏見に満ちた傲慢主義”が売り物の漫画「ゴーマニズム宣言」（小林よしのり作）は、過激に現代世相を斬り、若者に人気となった。小林の造語である「ゴーマニズム」は、若者の一部では“新思想”のような扱いを受けた。
- ◆**就職氷河期** : 雑誌『就職ジャーナル』から生み出された造語。就職環境の悪化は産業構造の問題であり、当然に一過性のものではなく長期的、本格的なものとの視点から「就職氷河期」と名付けられた。

## 第12回 [1995年]

- ◆**無党派** : 東京・大阪の知事選挙で、組織力、財力、権力の圧倒的基盤を持つ政党推薦候補を、無所属の青島、横山ノックが破り、メディアはこれを「無党派」パワーと呼んだ。
- ◆**NOMO** : NOMOは、観客増員、キャラクターグッズ売上増など、メジャーリーグ人気の回復に多大な貢献をした。
- ◆**「がんばろうK O B E」** : 1995年1月、神戸・淡路大震災が発生した。復興に立ち上がる市民を力付けたのが、このスローガン。
- ◆**ライフライン** : 阪神・淡路大震災によって、電気、ガス、水道、電話、食糧流通など、生命を支えるシステム「ライフライン（生命線）」がすべてマヒした。復興の過程で、災害時にこの「ライフライン」をどう維持するのかが大問題となった。
- ◆**安全神話** : 阪神・淡路大震災、オウム事件などが続発した1995年、行政

でも民間でも“セキュリティ・システム”が何一つ機能し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日本は「安全」との「神話」に寄りかかっていたことが原因で、抜本的な対策を早急に立て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だ・よ・ね (DA・YO・NE) ま、いっか (MAI CCA)」： 1995年の音楽シーンで爆発的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のがJラップ。

◆「変わらなきゃ」： イチローを全面に押し出した、日産自動車の安全・販売キャンペーンのコピー文句。

◆官官接待： この年、メディアに初めて大々的に登場した語が「官官接待」。地方の役人が、補助金の決定権を持っている中央の役人を供給するということなのだが、その“いじましさ”に庶民は絶句した。

◆「見ただ目で選んで何が悪いの！」： コダックのテレビCMから生まれた流行語。

◆インターネット： 加入利用者数4000万人、約150カ国、つまり地球上ほとんどの地域の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る、お化けのような情報交換システム「インターネット」。

### 第13回 [1996年]

◆「自分で自分をほめたい」： バルセロナ以後のスランプ、故障を乗り越えた有森の努力はスポーツマスコミによって広く知られていた。そのため「自分を誉めてあげたい」のセリフは素直に国民の間に受け入れられ、この年一番の流行語となった。

◆友愛／排除の論理： 新しい政治と政党のスタイルを言葉の上からも斬り込んでいった鳩山は、数々の新語を生み出した。

◆メードドラマ： “英語の達人”長嶋監督の造語。数々の長嶋語録の中でも、もっともポピュラーで“感動的”なセリフとなった。

◆援助交際： 売春を「援助交際」と称し、彼女たちに何の罪の意識も無いことは二重のショックであった。“売春”という実態を、言葉のマジックで「援助交際」と言い繕う忌まわしい流行語である。

◆ルーズソックス： 俗に言う“だらしなファッション”、ソックスのゴムを抜いただけで、アツという間に女子高生の足元ファッションに大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ルーズソックス」。

◆チョコベリバ チョベリグ： 社会の出来事や人物の評価、好き嫌いの表現語として「サイコー」「サイテー」に替えて使われる。英語のベリィ・バッドやベリィ・グッドの

上に「超」を冠したもの。

◆**閉塞感（打開）**：戦後50年以上経った1996年になっても、戦後日本の矛盾が沖縄に集約されている。この沖縄の「閉塞感」を、郷土への思いと基地の悩みを、沖縄県民大会で訴えた高校生の中村、比嘉の両君。

◆**アムラー**：スーパーアイドル安室奈美恵のファッションが大流行し、これをまねたギャルを「アムラー」と呼んだ。

◆**「ガンと闘うな」（がんもどき理論）**：医学界のみならず一般社会にも大きな衝撃を与えた、近藤の“新理論”「がんもどき理論」。

◆**不作為責任**：薬害エイズ問題で、組織ぐるみの責任逃れに終始した厚生省。薬害エイズ初期での重大な「不作為」と、それを立証する「ファイル」の発見を遅らせた卑劣な官僚主義的「不作為」を明らかにした。

#### 第14回 [1997年]

◆**失楽園（する）**：日本経済新聞に連載された『失楽園』は連載中から評判となっていたが、映画化されたことにより、日本中の話題をさらった。「不倫」を「失楽園する」と言うようになり、まるで不倫がブームのようになった。

◆**たまごっち**：1997年最大の話題となったヒット商品「たまごっち」（バンダイ発売）。たまごをニワトリに育てるというゲーム機器。

◆**時のアセス**：長期間に及ぶ公共事業を時代の変化に照らして見直そうと、独自の“評価システム”を作り、「時のアセス」と命名。

◆**ガーデニング**：昔からある“庭いじり”、狭いベランダや、猫の額ほどの庭でも“庭園”気分を味わえるのがみそ。英国風の構図、計算されたインテリア、英語式ネーミングなどで「ガーデニング」ブームを仕掛けた八木が受賞。

◆**日本版ビッグ・バン**：金融自由化が現実のものとなり、株の売買手数料を一挙に50%引き下げ、「日本版ビッグバン」の実質第1号と国内外から高く評価されたのが松井証券である。

◆**透明な存在**：神戸で起きた小学生連続殺傷「酒鬼薔薇」事件で、犯行声明文の中に書かれていた言葉。

◆**もののけ（姫）**：宮崎原作・脚本・監督によるアニメーション映画「もののけ姫」は、邦画史上最高の配給収入を記録した。

◆**パパラッチ**：ダイアナ英国皇太子妃の自動車事故死により、その存在がクローズ

アップされた。

◆**マイブーム**：漫画家のみうらが仕掛人である。要するに、世の中の流行とは無関係に、自分だけの「ブーム（流行）」を持つという生き方。その瞬間に興味を持ったものすらその時点で「ブーム」になるのだから、“流行”という概念自体をぶち壊しにする世紀末的言葉である。

◆**郵政3事業**：行政改革が遅々として進まぬ中、一石を投じたのが小泉。かねてからの持論である「郵政3事業の民営化」を具体化するように迫った。

### 第15回 [1998年]

◆**ハマの大魔神**：マシンガン打線を引っさげて、横浜ベイスターズは38年ぶりのセ・リーグ優勝、余勢を駆って日本一になった。最大の殊勲者がストッパー佐々木で、ついたあだ名が「ハマの大魔神」。

◆**「だっちゅーの」**：かわいい女性のお笑いコンビが、ひとしきり凡庸なギャグを飛ばしておいて観客のしらけを誘った末、決めのポーズで“落とす”際に発するセリフが「だっちゅーの」である。

◆**環境ホルモン**：21世紀の世界で、もっとも重要なテーマは“環境問題”である。この年、地球の生態系を狂わす恐れべき化学物質「内分泌攪乱化学物質」を、井口は「環境ホルモン」と名付けた。

◆**貸し渋り**：不良債権問題により“金融不安”が続く金融機関に、追い討ちとなったのが自己資本比率「早期是正措置」。内部留保金を増やしたい金融機関は、手っ取り早く「貸し渋り」を始めた。

◆**老人力**：新しい発想で、世の中の老人たちに大いなる勇気を与えた言葉「老人力」。

◆**ショムニ**：「ショムニ」とは庶務第二課のことで、“役にたたない”社員の島流しのような部署である。シュンとする男性陣に対し、女性陣はとにかく元気。元気な女性が活躍というストーリーがヒットの理由という。

◆**モラル・ハザード**：「モラル・ハザード」とは、本来は保険用語で“道徳的危険”という意味。だが1998年、経営破綻した金融機関の処理や、住宅金融専門会社の財政資金投入をめぐる、経営者の経営倫理欠如が指摘され、「モラル・ハザード」論議が大きな話題となった。

◆**「凡人・軍人・変人」**：自民党総裁選に立候補した三氏に対し、「どうせ在庫

一掃、ガレージセール」と切り捨て、返す刀で「小渕は凡人、梶山は軍人、小泉は変人」。

◆「冷めたピザ」：首相に就任した小渕を分析した受賞者の言葉で、『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で紹介され、全世界を駆け巡った。“何をしても食べられない”というのが「冷めたピザ」の意味で、日本人には大受けしてしまった。

◆日本列島総不況：小渕内閣の経済企画庁長官に就任した堺屋は、日本経済の現状を“停滞”ではなく「低迷」と断言した。さらに全体状況を「日本列島総不況」と、極めて明快な言葉で表現した。

◆スマイリング・コミュニスト：国内外での逆風の中、1998年参議院選で比例区で約1000万票という大躍進を遂げた日本共産党。その秘密は「スマイリング・コミュニスト」にあると報じられた。

◆ボキャ貧：小渕首相が、記者団の対応の中で自らを卑下して言った言葉。自分には語彙が少ない、ボキャブラリーが貧困、つまり「ボキャ貧」だと言ったのだが、これが反対に小渕首相の造語能力の“優秀さ”を立証することになった。

## 第16回 [1999年]

◆ブッチホン：突然、「ももし、ケイゾーです、オブチです。」と、官邸から電話がある。いたずらだろうと、みな疑ってかかる。が、電話の主は小渕恵三首相その人。ブッチホンはみずからが命名。

◆リベンジ：強気で負けず嫌いの彼が敗戦したゲームのあとに残したのがこの言葉。「復讐、仕返し」の意味で、巷でもさかんに使われた。「リベンジ」は格闘技K-1で以前より使われていた言葉。

◆雑草魂：連日投手記録を更新した大型新人。とは言っても華々しくデビューした松坂に対し、東海大仰星高校時代は控え投手で、チームも甲子園とは無縁だった。マスコミは地道にはいあがってきた新しいヒーローの心意気を「雑草魂」と表現した。

◆学校（級）崩壊：ショッキングなタイトルで学校教育の危機に一大警鐘をならしたベストセラーがそのまま流行語に。

◆カリスマ：情報が氾濫する現代だからこそ、身近なところに手本を求める。その象徴がカリスマ店員とよばれる超人気の売り子＝マヌカンたちだ。「カリスマ」は今年のキーワードで、「カリスマ美容師」「カリスマホスト」などがあらわれた。

◆ミッチー・サッチー：サッチーこと野村沙知代をめぐる騒動は連日、ワイドショーを

にぎわせた。火付け役はその後ミッチーの愛称で親しまれることになる浅香。

◆**西暦2000年問題**：英語圏ではY 2 K (year two kilo)。その昔コンピュータの容量が小さかった時代、プログラマーが、メモリをけちって年度表示を2桁にしたことから2000年になったことを判別できず、誤動作による事故のおそれがあるという問題。

◆**だんご3兄弟**：1999年1月、「おかあさんといっしょ」で歌われたコミックソング（作詞・佐藤雅彦）。シンプルな歌詞とメロディ、タンゴのきれのよいリズムによって、幼児から老人まで唱和することのできる国民歌謡。

◆**癒し**：バブル華やかなりし10年前、「24時間戦エマスカ」のコピーで大ヒットしたりゲインのCMが、坂本竜一のピアノソロとともに「この曲をすべての疲れている人へ」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るようになるなど、「癒し」はもはや国民的テーマ。

◆**iモード**：その火付け役となったのが、NTTドコモが始めた、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できる携帯電話新サービス「iモード」のヒット。

## 第17回 [2000年]

◆「**おっは一**」：朝の挨拶「おはよう」の短縮形。『おはスタ（おはようスタジオ）』で使った「おーは一」を、SMAPの香取慎吾扮するキャラクター「慎吾ママ」が、フジテレビ系列の人気番組『サタ★スマ』で使用したことで人気が出た。

◆**IT革命**：情報技術（Information Technology）分野での革命が、経済の新たな成長を担うとともに、国家・社会・企業等の組織を変えていく現象。IT革命のもたらす光と影については九州・沖縄サミットでも注目された。

◆「**最高で金 最低でも金**」：世界柔道選手権、福岡国際女子柔道などで連覇を重ねる田村亮子選手だが、92年のバルセロナ、96年のアトランタと過去2回のオリンピックでは銀メダル。2000年のシドニー五輪をまえに、田村選手はその目標を「最高で金 最低でも金」と表現した。

◆**Qちゃん**：シドニー五輪で、日本陸上界の悲願だった女子マラソン金メダルを獲得した高橋尚子選手のニック・ネーム。新入部員歓迎会で「オバケのQ太郎」の芸を披露したことからの愛称。

◆**ジコチュー（ジコ虫）**：自己中心のこと。（社）公共広告機構では、公共マナーのキャンペーンとして、ジコチューを「ジコ虫」に置き換え、いろいろな自己中心的な人（虫）たちを登場させるというTVスポットを流した。

◆**一七歳**：豊川の主婦殺害事件、福岡から広島にまたがった高速バス乗っ取り事件、岡山のバットによる母親毆殺事件。2000年に起ったこれらの凶悪な事件は、揃って犯人の年齢が十七歳で、また犯行動機が不可解であったことから、「一七歳」がキーワードとなり、少年法の改正論議とともに、その心の問題が多くのメディアで取り沙汰された。

◆**パラパラ**：1970年代のディスコではやった集団ダンスが復活。渋谷の公園では毎週「先生」を囲むパラパラ教室が催され、練習用ビデオまで配られた。流行であれば何でも取り入れるレースクイーンたちもイベントでガングロギャルとパラパラ。

◆**「めっちゃ悔し～い」**：「めっちゃ、悔し～い」とは、シドニー五輪女子水泳400メートル個人メドレー銀メダル・田島寧子選手が、プールから上がった直後に発した第一声。

◆**「ワタシ（私）的には…」**：文化庁の「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によると、いまだきの若者は「ワタシ的には」「お荷物のほう」「～とか」「～みたいな」などに代表される、「ぼかし言葉」を多用するという。

◆**「官」対「民」**：長野県では、2000年10月の知事選で市民活動への積極的な参加でも知られる田中康夫知事が前副知事らを破っての当選。その選挙の構図は新聞、テレビ等のメディアで「『官』対『民』」という言葉で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

## 第18回 [2001年]

◆**米百俵，聖域なき改革，恐れず怯まず捉われず，骨太の方針，ワイドショー内閣，改革の「痛み」**：所信表明演説で使われた。2001年4月、総理大臣となった小泉純一郎首相は、空前の国民支持を背景に、説得力あるキャッチフレーズを駆使することで01年最多の「流行語生みの親」でもあった。

◆**「明日があるさ」**：青島幸男作詞、中村八大作曲の30年も前の歌が缶コーヒーのCMで復活。世相に合った歌詞に一新し、不況感に打ちひしがれる日本人に「明日」への希望を思い出させて大ブレイクとなった。

◆**e-ポリティックス**：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政治。

◆**狂牛病**：1986年にイギリスで発生が確認された狂牛病（牛海綿状脳症 BSE）が、ついに日本に上陸した。

◆**塩爺（しおじい）**：小泉内閣発足とともに入閣した塩川正十郎財務大臣のニック

ネーム。

◆**ショー・ザ・フラッグ**：アメリカ同時多発テロの後、タリバンへの報復攻撃を加え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アーミテージ国務副長官が、柳井駐米大使へ要求したと伝えられた言葉。

◆**生物兵器（BC兵器）**：人員等に感染・増殖する病原性微生物・毒素等の生物剤、またはこれを充填した各種砲弾・ミサイル等の総称。

◆**抵抗勢力**：小泉内閣が推進する「聖域なき改革」に抵抗する勢力のこと。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夫から妻への、もしくは恋人など親密な関係の男性から女性への暴力をさす。

◆**ブロードバンド**：広帯域通信網のことで、高速で大容量の情報を送受信できる回線。

◆「**やだねったら、やだね**」：2000年にリリースされた、演歌歌手・氷川きよしが歌う『箱根八里の半次郎』の歌詞から流行語化。

◆「**人間て、なかなか死なないもんだ**」：長崎県沖で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たのは漁船「繁栄丸」の船長、武智三繁さん。約1カ月後に救助され、陸に上がって述懐した感想がこの「人間て、なかなか死なないもんだ」。漂流1カ月後の生還に日本中が驚き、またこの哲学的含蓄に富んだ一言が話題となった。

◆「**ファンの皆さま本当に日本一、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2001年、プロ野球セ・リーグのペナントレースを制したヤクルト・スワローズ。リーグ優勝直後のインタビューで、若松勉監督は「ファンのみなさま、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答え、意表をついた喜びの第一声はスタンドのファンを喜ばせた。

## 第19回 [2002年]

◆**タマちゃん**：8月7日に東京都と神奈川県を分ける多摩川丸子橋付近で“突然”発見された「タマちゃん」には、大勢の見物客が詰めかけ、夏いちばんの話題となった。

◆**W杯（中津江村）**：正式名称「2002 FIFAワールドカップ（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カメルーン・チーム誘致に成功した大分県中津江村。

◆**貸し剥がし**：BIS規制による自己資本比率を一定水準以上に保つためには、よりリスクの大きい中小零細企業への新しい資金貸し出しを渋り、既に貸しているところからは

“引き剥がすように強引”に資金を回収しなければならない。

◆**声に出して読みたい日本語**：『日本語練習帳』（大野晋著・岩波新書）あたりにはじまり、2001（平成13）年からブレイク日本語・日本語本ブームのなかでも出色なのは同書。

◆**真珠夫人**：フジテレビ系・東海テレビ制作の、昼のメロドラマのヒット作（2002・4・1～6・28）。戦後の混乱期を舞台に、旧華族令嬢の波乱に満ちた悲恋を描いて、主婦層を中心に真珠夫人ブームを起こした。

◆**ダブル受賞**：お二人は日本人では3年連続の11人目、12人目となるノーベル賞受賞者だが、2人の日本人が同じ年に授賞さ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

◆**内部告発**：食品の安全・表示事件、リコール事件、医療過誤事件、牛肉偽装事件、原子力発電所トラブル隠し事件など、一連の企業の不祥事を明らかに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内部告発」が注目されている。

◆**ベッカム様**：2002 FIFA W杯において、日本人の間（ことさら女性の間）で最も人気の高かったイングランドの選手。

◆**ムネオハウス**：北方四島支援事業に絡む「友好の家」（ムネオハウス）建設の不正入札問題はじめ、ディーゼル発電所不正入札問題、国有林の無断伐採の製材会社「やまりん」から収賄…。

◆**拉致**：「拉致」は、辞書的には「無理に連れて行くこと」の意であるが、2002年の意味としてはもっぱら「北朝鮮工作員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となる。

◆**Godzilla**：2002年シーズンまで読売巨人軍で4番打者をつとめた松井秀喜選手は、シーズン後、FA資格を獲得し、次シーズンから米メジャーリーグでプレーする意向を表明した。愛称・ゴジラは、高校時代からのもの。

## 第20回 [2003年]

◆**毒まんじゅう**：2003(平成15)年9月の自民党総裁選で、政界引退を決意した野中広務元幹事長が、小泉首相支持に回った一部の政治家を非難する際に使った言葉。

◆**なんでだろう～**：ジャージ姿に身を包み、開いた手を顔の周りで振り回しながら歌うテツ and トモの当たりギャグ。

◆**マニフェスト**：通常は「政権公約」と訳される。2003(平成15)年の春の統一地方選で多くの候補者が有権者にマニフェストを提示し、同年秋の衆院選でも各

党が冊子を作成して「マニフェスト選挙」などともいわれた。

◆**勝ちたいんや!** : 阪神タイガース星野仙一監督。背番号77。監督就任まで4シーズン連続最下位だった阪神を2003(平成15)年リーグ優勝へ導いた。

◆**コメ泥棒** : ナシ、メロン、アスパラガス、ブドウなど、農作物盗難が相次ぐなか、冷夏による不作で値上がりしたコメを狙う泥棒が多発。

◆**SARS** :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年収300万円** : いま転職すれば即刻年収300万円、転職しなくてもじわじわと賃金が下がっていき300万円に落ち着く時代。

◆**バカの壁** : 2003(平成15)年、書店には「バカ」本がずらりと並んだ。

◆**ビフォーアフター** : もともと美容薬・器具の広告に使われてきた言葉だが、ABC放送(テレ朝系)『大改造!! 劇的ビフォーアフター』でリフォーム用語に。

◆**へえ〜** : フジテレビの人気番組「トリビアの泉」から流行した言葉。

## 第21回 [2004年]

◆**チョー気持ちいい** : 8月15日のアテネ五輪2日目。男子100メートル平泳ぎで金メダルを獲得した北島康介選手がプールから上がって述べた感想。

◆**気合だー!** : ホデイビルポーズで前傾姿勢になり、顔をクシャクシャ(一生懸命な感じ)にして「気合だ〜!」と心の底から叫ぶ。

◆**サプライズ** : 小泉首相に関しては単なる「サービス」の意味で使われる。第1次内閣から田中真紀子外相など組閣にあたって意外な女性を採用。このコトバは拡大解釈され2004(平成16)年7月の参院選前に突然訪朝してジェンキンスさんを返せと金正日総書記に迫った行動なども、小泉流サプライズ。

◆**自己責任** : 自己責任という言葉が頻繁に用いられたのは、2004(平成16)年4月、戦闘が続くイラクで発生した武装グループによる日本人人質事件のときだった。3人の日本人人質に対して自己責任という言葉が向けられたのだ。

◆**新規参入** : 近鉄・オリックスの合併で5球団となったパ・リーグに、新たにライブドアと楽天が参入を表明。

◆**セカチュー** : 2001(平成13)年4月に発売された片山恭一の小説『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が、小説過去最多部数に。タイトルはハーラン・エリスン著のSF『世界の中心で愛を叫んだけもの』にオマージュを捧げたアニメ『エヴァンゲリオン』の最

終回(同名)にオマージュを捧げたもの。

◆中二階：次期リーダーのポジションにしながら、いまひとつ影がうすい自民党の有力者、具体的には平沼赳夫前経済産業相、古賀誠元幹事長、高村正彦元外相、麻生太郎総務相のビョーさを表現したことば。

◆**って言うじゃない… ○○斬り！ …残念！！ って言うじゃない**

：ギター侍こと波田陽区(本名：波田晃)が、ギャグの転調時にはさむ言葉。着流し姿でギター一本を持ち現われる波田は、物憂い目つきで流行を取り上げ、ヨン様「って言うじゃない」と歌い、続けて「残念!!」と切り返す。「ヨン様と結婚したら、名字がべだから、残念!」、と斬る。

◆**負け犬**：「30代、非婚、子なし」を女の“負け犬”と定義したコラムニスト酒井順子のベストセラー『負け犬の遠吠え』からきている。

◆**冬ソナ**：2002年1月から3月に韓国KBSテレビで放送された人気ドラマ「冬のソナタ」、日本でも03(平成15)年4月からNHK BS2で放映され、好評を博した。

## 第22回 [2005年]

◆**小泉劇場**：2005年9月の衆院選は、小泉首相の意図するせざるに関わらず「造反」「刺客」「くのいち候補」の登場、郵政民営化問題に絞られた単純な争点などにより、さながら「小泉劇場」の態をなした。

◆**想定内(外)**：ライブドア堀江貴文社長が、その負けず嫌いな性格からフジVSライブドア騒動の中で連発した。簡単な言葉に翻訳すれば「そんなことわかってますよ」。

◆**クールビズ**：2005年夏、政府が主導した軽装運動。

◆**刺客**：2005年9月の衆院選、小泉首相は、郵政造反組の自民党候補者に対し、造反を理由に公認を与えず、対立候補を立てた。綿貫民輔、亀井静香、堀内光雄、小林興起などに当てられた強力候補は「刺客」とよばれた。

◆**ちよいもテオヤジ**：岸田一郎編集長率いる月刊ファッション雑誌『LEON』(主婦と生活社)が繰り出すコピー群とその周辺文化。

◆**フォーー!**：お笑いコンビ・レーザーラモン(住谷正樹と出淵誠)の住谷がハードゲイに扮し、レーザーラモンHGとしてテレビに登場したところ大ブレイク。「OKわかりましたフォーー!」。「フォー」(正確には「フー」)はその持ちネタ。

◆**富裕層**：「金持ち」という名称に阿漕さが臭うため「高額所得者」と言い換えら

れ、さらに色を薄めた「富裕層」になった。

◆**ブログ**：ウェブログ(Web-log)の略称。

◆**ボビーマジック**：2005年プロ野球日本一に輝いた千葉ロッテ・マリーンズのボビー・バレンタイン監督の采配、選手起用等への賛辞。ロッテナイン（とりわけ前任時に育成された選手や今回抜擢された若手）を指してボビーチルドレンとも。

◆**萌え～**：「ある事物に対して、深い思いを抱く」ことをさす「萌え」は、2005年にはおたく世界を越え、かなり一般化。萌え業界、萌え銘柄、もえたん、萌え株本、萌え属性などさまざまな使われ方をしている。

### 23回 [2006年]

◆**イナバウアー**：トリノオリンピックのフィギュアスケート金メダリスト、荒川静香の得意技。上体を反らした独特のポージングが話題に。本来は両足の爪先を外側に大きく開いて横に滑る技。体を反らせることをさすわけではない。

◆**品格**：藤原正彦著『国家の品格』の爆発的な売行きとともに広まった。氏は「論理よりも情緒を」と、日本人が備えていたはずの品格について説き、「儲かれば何でもよい」というマネーゲーム全盛の世の中に一石を投じた。

◆**エロカッコイイ(エロカワイイ)**：ボンテージにバニーガール、下着など、際どい衣装で一気に人気者になった倅田来未。彼女のセクシーな衣装やスタイルは、「カッコイイ・カワイイ」ファッションとして認知され、肌を露出する女性が増加した。

◆**格差社会**：これまでの「一億総中流」が崩れ、所得や教育、職業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格差が広がり二極化が進んだといわれる。

◆**シンジラレナ～イ**：2006年のパ・リーグを制した際に、日本ハムファイターズのヒルマン監督がお立ち台でこう絶叫。その後、日本一にも輝き、やはりインタビューの際に「シンジラレナ～イ」を披露。

◆**たらこ・たらこ・たらこ**：キューピーのCMに登場する「たらこキューピー」が、少し気持ち悪いキャラながらも人気を集めた。

◆**脳トレ**：簡単な計算や音読などで脳の活性化をはかるトレーニング法の通称。

◆**ハンカチ王子**：2006年夏の甲子園を沸かせた早稲田実業の斎藤佑樹投手の通称。持っていた青いハンカチ(ハンドタオル)で汗を拭うその姿と爽やかさが世の女性を虜に。その後、ハンカチで汗を拭うパフォーマンスが流行した。

◆**ミクシィ**：日本で最大の会員を獲得(2006年9月時点で570万人)したSNS(ソーシャ

ル・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なお同社の笠原健治社長をはじめ、はてなの近藤淳也社長らはIT界の新世代の意で「ナナロク世代」とよばれている。

◆**メタボリックシンドローム(メタボ)**：代謝症候群、内臓脂肪症候群とも。肥満に高血圧、高血糖、高脂血症などが重複して発症してる状態で、心筋梗塞や脳梗塞になりやすい。

## 第24回 [2007年]

◆**(宮崎を)どげんかせんといかん**：東国原英夫・宮崎県知事が県議会での所信表明で、「停滞のもととなった古いしがらみからの解放が必要」と方言を交えながら説いた。

◆**ハニカミ王子**：男子プロゴルフツアーに15歳8カ月の最年少記録で優勝した杉並学院高校1年の石川遼選手の愛称。

◆**(消えた)年金**：5000万件ともいわれる基礎年金番号に統合されていない記録のこと。

◆**そんなの関係ねえ**：サンミュージック企画に所属するお笑いタレント、小島よしおのギャグ。海パンだけを身にまとい、軽快なリズムに乗せて自分を奮い立たせるように「でも、そんなの関係ねえ！」と連呼する。

◆**どんだけえ〜**：「どれほど〜なのか、それほどでもないだろう」の意味。反語的に使われ嫌味、非難などが含まれることが多い。

◆**鈍感力**：渡辺淳一の同名の著書によって流行語化。小さなことにあくせくしないで、ゆったりと生きているほうが最後に勝ち残ることができるの意味で、とかく社会から排除される「鈍感」に積極的な意義づけをした。

◆**食品偽装**：食品加工卸会社ミートホープによる偽装ミンチの出荷問題をはじめ、「比内鶏」「名古屋コーチン」「白い恋人」「赤福」など、一般によく知られた食材・関連企業にも次々に不祥事が発覚した。

◆**ネットカフェ難民**：働いてはいるものの、事情によりネットカフェに寝泊まりする人たちがネットカフェ難民として報道された。

◆**大食い**：カップ麺、プリン、アイスクリーム、ハンバーガーなど高カロリーな「メガ」サイズの食品の発売が相次いだ。

◆**猛暑日**：1日の最高気温が35度以上の日を指す。最近10年間に35℃以上の日が大幅に増え、熱中症等、暑さにとまなう健康被害も目立ってきているため、気象

庁が新用語として導入した。07年は多治見と熊谷で40.9度を記録。

## 第25回〔2008年〕

◆**グ〜!** : 女優、コンピューターインストラクター、マナー講師など異色の経歴をもつ新人お笑い芸人エド・はるみによるギャグ。フォーマルな出で立ちで両手の親指を突き立て、突然「〇〇グ〜!」と声を上げる。

◆**アラフォー** : 天海祐希主演の金ドラ『Around40』から広がったことばで、40歳前後のこと。特に女性を指す。

◆**上野の413球** : 北京オリンピックの女子ソフトボールで、エース上野由岐子投手が準決勝のアメリカ戦・3位決定戦・決勝戦と2日間に1人で投げ抜いた投球数。日本ソフトボール界にとって念願の金メダルを獲得する原動力となった。

◆**居酒屋タクシー** : 深夜に帰宅する霞が関の官僚が、利用するタクシーの運転手からビールやおつまみに加え現金や金券も受け取っていたという新種の公務員不祥事。

◆**名ばかり管理職** : 日本マクドナルドの現役店長が未払い残業代と感謝料を求めて訴訟を起こしたことから、権限も報酬もないまま社員を管理職の地位に就け、残業代や休日出勤手当を払わない会社やチェーン店の実体が明らかになった。

◆**埋蔵金** : 「埋蔵金」論争のきっかけは、「自民党財政改革研究会」が2007年にまとめた報告書にある。

◆**蟹工船** : 小林多喜二によるプロレタリア文学の代表作のタイトル。オホーツク海上の蟹工船で酷使される貧しい労働者達の群像劇が、格差・ワーキングプア等の現代日本の社会問題と重なり、発表から約80年後の今年ブームとなった。

◆**ゲリラ豪雨** : いきなり局所的に発生する集中豪雨。

◆**後期高齢者** : 新医療制度施行にともない、国が75歳以上の高齢者のことを指して名づけた名称。

◆**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 : 前年の安倍首相に続き、突然の辞任劇となった福田康夫首相は、「国民からは他人事のように見えるが」との質問に対し「私は自分自身を客観的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と気色ばんで答え、話題を呼んだ。

## 26回 [2009年]

- ◆**政権交代**：8月30日の第45回衆院総選挙。自民党は300から119へと議席を激減させ惨敗。選挙による政権交代が実現したのは初めてのこと。
- ◆**こども店長**：2009年4月から始まったトヨタ自動車のCMシリーズで、子役の加藤清史郎が自動車販売店の店長を演じる。赤いジャケットがトレードマークで、エコカー減税を子供らしい可愛い比喻でPRする。
- ◆**事業仕分け**：国や地方自治体が行う個別の事業について、公開の場で必要性や効率的な実施方法を議論する手法。
- ◆**新型インフルエンザ**：2009年4月、メキシコ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が発生。世界的に感染が広まりWHOは6月にパンデミック（爆発的流行）を宣言。
- ◆**草食男子**：協調性が高く、家庭的で優しいが、恋愛やセックスには積極的でない、主に40歳前後までの若い世代の男性を指す。
- ◆**脱官僚**：みんなの党代表の渡辺喜美などが提唱した、「天下り廃止、政治・国民主導」の理念。民主党政権も当初「脱・官僚」を打ち出したが、郵政人事を初めとする相次ぐ元官僚の起用に、その雲行きは怪しくなっている。
- ◆**派遣切り**：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の急激な雇用調整において、非正規労働者は真っ先に雇用調整の対象となった。まず削減の対象となったのは派遣労働者で、特に生産の落ち込みが激しかった自動車や電機など製造業の派遣労働者は真っ先に削減されることに。
- ◆**ファストファッション**：百貨店の苦境が続く中、売り上げを伸ばしている「安くて手軽なファッション」のこと。
- ◆**ぼやき**：東北楽天・野村克也監督は試合後インタビューでの「ぼやき」で有名。
- ◆**歴女（レキジョ）**：時代小説を読み、史跡も訪ねるなど、本格的に「歴史通」になる若い女性が増えている。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戦国時代などをテーマにした映画やゲーム、またイケメン俳優が出演した大河ドラマ「天地人」など。